

본격청춘재난

엑시트

외유내강

각본/감독 이상근

1. 폐 공장 - 실내/밤 (비)

천장 틈사이로 뚝뚝 떨어지는 빗물이 바닥을 적신다.

의미를 알 수 없는 낙서로 가득한 한 쪽 벽면에 사람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간다.

백색의 작은 방 안, 탁자 위 투명박스 안에 생쥐 두 마리가 보인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일호, 방독면을 쓰고 있어 눈을 제외하고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

일호가 투명박스로 다가와 뚜껑을 열고 먹이를 주자 생쥐들이 달려와 정신없이 먹기 시작한다.

주머니에서 작은 병 두 개를 꺼내는 일호, 각각 빨간색과 파란색의 라벨이 붙어있다.

투명박스 가운데 놓인 작은 사발 위로 떨어지는 빨간색 액체 한 방울.

뒤이어 파란색 액체 한 방울이 빨간색 액체 위로 떨어진다.

이내 합쳐진 두 액체 끓기 시작하더니 엄청난 양의 하얀색 연기를 발생시킨다.

마치 구름처럼 뭉게뭉게 피어나는 하얀 연기, 박스에 달린 가스 측정기의 수치가 점점 올라간다.

박스 중간높이에서 시작된 연기는 위 아래로 퍼져가며 내부를 잠식하기 시작한다.

바닥에 붙어있는 생쥐들에게 점점 내려오는 하얀 연기와 이를 바라보는 일호의 멍한 눈빛.

넓은 공간, 빨간색의 두꺼운 호스를 질질 끌어 어딘가에 연결하는 일호, 파란색의 호스도 반대편에 연결한다. 저장고와 연결된 버튼을 누르자 위잉! 소리와 함께 꿀렁거리는 호스들.

화면 넓게 빠지면 어두운 창고 안에 서 있는 기괴한 모습의 거대한 탱크로리 한 대.

탱크로리와 연결된 두 호스로 뭔가가 계속해서 주입되고 있다.

방독면을 쓴 채 이를 바라보는 일호의 눈으로 다가가며 디졸브 되는 화면,

백색의 작은 방 안 가운데 있는 하얀 가스로 가득 찬 투명 박스와 이어진다.

투명박스 안 하얀 가스 속으로 빠르게 들어가며 떠오르는,

타이틀 - 엑시트

2. 동네 놀이터 - 실외/낮

장소를 알 수 없는 어딘가, 준비운동을 하는 한 남자의 뒷모습.

스트레칭 하는 남자의 핏줄 선 팔뚝, 갈라진 잔 근육들이 꿈틀거리며 깨어난다.

블루투스 이어폰의 재생버튼을 누르자 흘러나오는 경쾌한 음악과 함께 등장하는 용남의 얼굴.

잠시 숨을 몰아쉬더니 손에 파우더를 바르는 용남, 철봉 앞에 서더니 점프해 매달린다.

능숙하게 시작되는 용남의 철봉 운동. 일반적인 턱걸이에서 시작해 내려오며 천천히 버티기,

한 손으로 하기, 넓게 잡고 하기 등 점점 심화되는 모습이 능숙해 보인다.

철봉에서 내려와 숨을 고르는 용남, 주변을 둘러본다.

화면 넓게 빠지면 이곳은 동네의 평범한 놀이터.

용남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는 할머니들의 무표정한 얼굴,

고추를 벌레 말리는데 집중하는 아줌마,

유모차 끄는 아기 엄마와 옆에서 미니 드론을 조종하는 아이가 주변으로 보인다.

할머니들의 시선에 머쓱한 표정을 짓는 용남, 물을 줌 마시곤 다시 철봉을 시작한다.

장난감 총을 들고 놀이터로 몰려오던 초등학교 무리들이 용남을 발견하고 그 자리에 멈춘다.

지호 친구1

어! 봉남이다! 진봉남!

지호 친구2

... 진봉남? 그게 누군데?

지호 친구1

저기 저 아저씨... 진격의 철봉남이라고... 동네서 유명해... 옛날에
저 아저씨 애인이 철봉 하다가 떨어져서 죽었대... 그래서 미쳐가
지고 철봉만 보면 저러는데... 원래는... 엄청난 천재였대...

지호 친구2

... 그럼 지금은?

지호 친구1

... 동네 바보...?

지호

(구겨진 표정을 애써 감추며)

야! 가자! 우리 딴 데 가서 하자!!

지호 친구2

갑자기 뭘 소리야! 딴 데 어디!? 그냥 여기서 해!

아이들이 잠시 실랑이를 벌이는 사이 철봉에 다리를 걸어 거꾸로 매달리다 지호를 발견하는,

용남

어? 야! 지호야! 한지호!!

(두 눈 질끈 감으며 한숨을 내쉬는 지호를 향해 반갑게)

너 여기서 뭐해? 학원 안 갔어?... 너희가 우리 지호 친구들이냐?

지호 친구들

(눈치를 살피며)

아... 안녕 하세요...

용남

(철봉에서 내려와 몸을 풀며)

어 그래! 친구들 인사 잘하네! 너희들 삼촌이 뭐 마실 거 사줄까?

지호 친구2

전 초코몽이요!

지호

됐어! 안 먹어! 야 가자!

지호 친구2

아 왜에! 목마르단 말야! 나 당 떨어진 거 같아...

지호

(아이들을 이끌고 나가며)

아 그냥 좀 가자고! 빨리 가!

용남

야! 어디 가! 내가 초코몽 사줄게! 지호야! 야!

지호 친구1

야 한지호... 진봉남... 저 아저씨가... 너네 삼촌이야?

지호

에이씨 진짜! 아니야! 삼촌 아니라고오!

지호 친구1

그럼 누군데? 누군데에?

용남

(멀어지는 지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하... 짜식이 뭘 저렇게 쑥스러워 해... 옛날엔 그렇게 앵기더니...

그 때, 문자 알림소리에 핸드폰을 꺼내 바라보는 용남.

문자

‘이용남 님은 신입사원 모집 최종전형에서 탈락하셨습니다. 다음
에 좋은 인연으로 만나 뵙길 기대하겠습니다. 동구물산 인사팀’

멍한 표정의 용남, 아이가 날리던 미니 드론이 머리에 부딪치자 힘없이 털썩 주저앉는다.

3. 용남의 집, 거실 - 실내/밤

한숨을 내쉬며 부엌에서 설거지 중인 용남, 엄마 현옥(70세)은 TV에서 방송 중인 건강관련 프로그램을 보며 노트에 열심히 필기중이다. 옆에 있는 아빠 장수(73세)가 현옥의 눈치를 살피며 리모컨으로 천천히 손을 가져다댄다.

현옥

(리모컨을 낚아채며)

내가 이거 보려고 며칠 전부터 기다렸는지 알아?! 남자가 뭘 놔
의 드라마를 그렇게 좋아하는지... 아이고 참 봤네 참 봤어...

장수

하... 왜 맨날 독점이야... 텔레비가 당신거야?! 어?!

리모컨을 뺏으려 몸싸움을 벌이는 두 사람, 현옥의 힘을 장수가 당해내지 못한다.
썹그랑! 그릇 깨지는 소리에 현옥이 리모컨을 놓자 장수가 뒤로 벌러덩 쓰러지며 채널을 돌린다.

현옥

뭐야! 또! 뭐 켜어?! 안 다쳤어?!

용남

미끄러진 거야...

현옥

어휴! 시키지도 않은 것들... 그만하고 나와! 남자가 부엌에서 그
러고 있는 거 나는 하나도 반갑지가 않아!

이때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용남의 큰누나,

정현

뭐가 또 이렇게 시끄러워... 밖에까지 다 들려!

현옥

넌 또 왜 왔어?

정현

아 나도 오기 귀찮아!

(빈 김치통을 들어 보이곤 실실 웃으며)

애들이 할머니 김치가 없음 밥을 못 먹는데 어떡해.

현옥

아니 지금이 몇 신데 애들 밥도 안 먹었어!?

정현

(냉장고를 뒤지며)

아까 카레 먹었어...

현옥

애들이 인도 사람도 아니고 허구한 날 그놈의 카레는... 카레를
얼마나 해먹었는지 그릇들이 다 노래가지고 댕이지도 않아!
(장수 옆에 있는 리모컨을 발로 끌어당겨 채널을 바꾸며)
지가 귀찮으니까 그냥 한 술 끓여가지고 일주일 내내...

장수

옴장... 씨...

정현

(설거지 중인 용남을 바라봤다가)
재는... 뭐... 설거지 시키려고 넣은 거지? 야... 너 그거 끝나면 우리 집으로 좀 와라... 설거지 할 거 많은데.

벽에 걸린 용남의 가족사진, 모두 환하게 웃고 있는 표정들이다.

4. 용남의 방 - 실내/밤

정현

(옷장에서 양복을 꺼내 냄새를 맡으며)
흠... 흠... 어? 너 이거 최근에 빨았나? 저번처럼 똥냄새 안 나네?

용남

... 그냥 좀 나가라... 제발 부탁이다...

정현

야, 봐봐... 너 내가 미용실 가라했어 안했어? 시간도 쳐 남아도는 새끼가 하아... 자! 오천 원이면 되지? 남는 건 그냥 너 하고...

용남

(정현이 내민 만원을 낚아채고 꾸겨서 집어던지며)
에이씨! 누굴 거지로 아나! 내일 깎을 거야 내일! 내가 거지꼴을 하고 가든 말든 누나가 뭘 상관인테에!!

정현

야이 새끼야! 너 댐에 그래?! 너 엄마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생각이 많겠냐? 칠순잔치 한다고 사람들 불러놓고 아들이라고 소개 하려는데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양복을 다시 옷장에 집어넣으며)
내세울게 없음 깔끔하게라도 하고 가야 할 거 아냐!
(쌓여있는 각종 등산장비를 딱 꺼내며)

하... 너 이거 다 안 갖다 버릴 거냐? 옛다 고물상 차릴 거야?

용남

... 제자리에 뒀라 좋게 말할 때....

정현

좁은 방에 뭘 이렇게... 아 갑자기 또 빠치네! 동아리를 할 거면
영양가 있는 걸 했어야지 쓸데없이 산악부가 뭐냐? 산악부가!

용남

손 뽐뽐!...

(의아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정현에게)

손 좀 잠깐 쥐봐... 뭐가 이상해서 그래... 빨리...

정현이 손을 내밀자 바로 꺾어버리고 문 쪽으로 밀고 가는 용남.

정현

아악! 아파! 놔! 아프다고! 아빠!! 엄마!! 이 새끼가...

용남

(정현을 쫓아버리며 문을 닫고, 아까 던진 만원을 주워 챙기며)

와 진짜... 매형 존나 대단하다... 어떻게 같이 살아... 후...

옷장으로 다가가 어질러진 등산장비들을 정리하던 용남, 카라비너를 보며 만지작거린다.

5. 과거, 야외 인공암벽 - 실외/낮

철컹! 인공암벽에 설치된 카라비너에 걸리는 로프.

몇 십 미터 높이의 야외 인공암벽에 십여 명의 클라이머가 붙어있다.

인공 암벽 아래 모여 있는 신입생들 앞에서 품을 잡으며 설명 중인,

기백

클라이밍 전 가장 먼저해야할 기본 중에 기본이 루트 파인딩이
야! 루트 파인딩이 뭐냐!? 길 찾기! 우리가 목적지는 설정했는데
가는 길이나 방법을 모르면 도착할 수가 없잖아?

(뒤로 보이는 인공암벽을 가리키며)

시작지점에서 완등지점까지를 상세하게 관찰하면서 난이도나 안
전성, 오르는 방법, 동작 등을 머릿속으로 미리 상상해 보는 걸
루트 파인딩 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신입생들

네!

인공암벽 중간쯤 매달려 있는 과거 모습의 용남을 향해 다가가는 화면 위로-

기백

아무리 정확하게 루트 파인딩을 했다 한 들 실제로 올라가다 보면 내가 생각한 거랑 달라! 그럴 땐 어떻게? 빠른 판단으로 대안을 찾아야겠지?

잠시 쉬며 위를 바라보는 용남, 능숙하게 정상을 향해 올라가는 여자의 뒷모습이 보인다. 바닥에서 모여 있는 사람들 모두 그녀의 동작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다. 질 수 없다는 듯 빠르게 몸을 움직이는 용남.

기백

(용남을 바라보며)

용남아! 급해! 완등 못해도 되니까 천천히 해! 천천히!!

무리해서라도 빨리 오르고 싶은 맘에 홀드를 건너뛰려 맘먹는 용남. 숨을 잠시 고르더니 점프해서 순간적으로 홀드를 잡는가 싶더니 결국 놓치며 추락한다. 안전로프에 의지해 공중에 대롱대롱 매달리는 용남.

기백

야이 새끼야! 길 좀 봐라 제발! 하...

(신입생들을 바라보며)

봤지?! 통밥 밟고 오르던 자의 최후를! 저렇게 하면 안 돼!

갑자기 들려오는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소리. 용남이 위를 바라보면, 완등에 성공한 여자가 정상 홀드를 두 손으로 치면서 환호하고 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여자의 뒷모습을 한참이나 올려다보는 용남.

6. 현재, 호프집 - 실내/밤

맥주를 마시고 있는 현재의 용남과 기백, 기백은 정리가 안된 긴 장발의 모습이다.

용남

... 형... 제발... 그 머리 좀 어떻게 하면 안 돼...?

기백

내가 말했지... 나 자신과의 약속이라고! 시험 불기 전까지 안 깎아! 너도 취업되기 전까진 클라이밍 안 할거라며!

용남

... 아 씨... 제발 좀 붙어라 형... 내가 기도할게 진짜...

썩썩한 표정으로 각자 잔을 비우는 두 사람.

기백

아... 안 보여... 앞이 하나도 안 보여... 어디로 어떻게 가야 되는
지를 모르겠어... 어렸을 때 나도 장래 희망이 있었던 거 같은데...
그게 뭐였지...? 아 기억이 안 나네...

용남

형이 그때 생각했던 장래는 애초에 지났고... 우리 지금 그냥 좀
뺨 개 쓰레기야... 땀 애들 취업 준비할 때 우리가 뭘했는데?! 아
까부터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하고 있어... 형 요즘 뭐 도 닦아?

갑자기 핸드폰을 들더니 검색 창에 뭔가를 입력하는 기백, 검색어 '스님 연봉'.
순간, 기백의 핸드폰이 찌잉! 소리를 내며 먼저 울리더니 용남에게도 날아오는 긴급재난문자.
주변 사람들 모두 핸드폰을 들어 바라본다.

용남

와... 또 지진이냐... 진짜 우리 동네 아니라서 다행이다...

기백

이 새끼 아직 뭘 모르는구만!? 네가 지금 안전한 거 같냐? 너 지
금 재난 속에 있어! 지진, 쓰나미 그런 것만 재난이 아니라! 우리
지금 상황이 재난 그 자체라고! 야! 근데 내가... 그렇게 잘못된
거냐? 어?! 대답해봐!! 진짜 이 모든 게... 완전히 백퍼 다 내 탓
인 거냐고!?

용남

(잠시 진지하게 생각해보곤)

... 어...

할 말이 없어진 기백이 맥없이 술을 들이킨다.

7. 용남의 집, 거실 - 실내/낮

와이셔츠를 입고 팬티 차림으로 거울을 보며 드라이 중인 용남, 섬세한 손길로 가르마를 만지며
곧 완성되려는 순간이다. 갑자기 나타나 빗으로 용남의 가르마를 반대로 확 넘겨버리는,

용남

... 뭐하는 거야...?

현옥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며)

넌 이쪽 가르마가 훨씬 나아! 여기 봐봐! 웃어!

용남

내 가르마야! 내가 엄마 머리 맘대로 하면 좋아?! 함 해볼까?!

현옥

(자신의 머리를 형클어뜨리며 씩씩대는 용남을 보며)

엄마야... 애가 들었나 이렇게 성질이 더러워서 얻다가 써먹는데...

장수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며)

안 갈 거야?! 간다간다 해놓고 벌써 한 시간 켜야! 에이씨!! 가지
마! 가지 말라고! 당장 취소해! 전화 하라고! 연장!!

8. 차 안 - 실내,외/저녁

운전 중인 용남, 뒷좌석에 탄 장수와 현옥.

장수

연장... 참 멀리도 간다... 뭐 대단한 거 한다고... 먼저 도착해서
손님들도 맞고 해야 될 거 아냐...!

용남

아... 다 왔으니까 그만 좀 하세요...

현옥

(장수의 넥타이를 만져주며)

대봐, 애들이 어련히 알아서 했겠지 그냥 시키는 대로 가만히 좀
있어요,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말고 어? 또 술 많이 마실 거야?

장수

... 안 마셔... 내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한 방울이라도 마시면
인간도 아니다! 됐어!? 하아...

용남의 차가 지나간 대로변 옆 골목, 괴상해 보이는 거대한 탱크로리 한 대가 주차돼 있다.

9. 구름정원, 입구 - 실내/저녁

용남일행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자 도착해 있던 누나네 가족들이 이들을 맞이한다.

정현 (첫째 누나)

아 진짜! 주인공이 뭐 이렇게 늦게 와! 맨날 늦어 맨날!!

장수

야! 나 없었으면 내일 도착할 뻔 했어! 준비하는 데만 백 날 천 날이야!! 어휴 내가 천불이 나서...

(현옥이 옆구리를 꼭 찌르자 놀라서)

아아!!

둘째 누나 (정미)

예상을 벗어나질 않아... 어떻게 밖에 나서기만 하면 싸워?

셋째 누나 (정윤)

(만삭의 배를 만지며)

야! 너 또 뭘 지랄했어?

용남

허... 임신부 입 보게... 태교 아주 잘 한다...

첫째 매형

우어! 장모님! 오늘 너무 아름다우신데요?!

현옥

어휴! 뭘 소리야! 쭈그렁 망탱이지 뭘... 호호...

장수

암마! 너 벌써 술 한 잔 했어? 어서 헛소리를 하고 자빠졌어!

첫째 매형

아버님?! 우와! 전 무슨 배우인 줄 알고 진짜 몰라 뻘어요!

장수

이야... 압삽한 놈... 이놈이 승진 빠른 이유가 이거였구만?!

둘째 누나

(봉투를 건네며)

엄마 송 서방이 못 와서 죄송하다고... 얼마 안 돼...

현옥

(봉투를 받아들고)

괜찮아 일이 먼저지! 난 솔직히 송 서방 보다 이게 더 반갑네!

용남

(셋째 매형과 대화를 나누며)

죄송해요... 제가 연락도 자주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셋째 매형

(용남의 어깨를 치며 다 안다는 듯)

용남아! 너무 걱정 하지 마! 곧 웃는 날 온다? 다 잘 될 거야!

이때 가족들 걸으로 다가오는,

구 점장

안녕하십니까? 구름정원 점장 구진만이라고 합니다. 오늘 김현옥
여사님 교회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계시는 동안 최고의 서비스
와 고객만족!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자! 다들 이쪽으로 이동하
시죠!

구 점장을 따라 이동하는 용남과 가족들, 카운터 앞 칠판에 예약 상황이 분필로 예쁘게 적혀있다.

10. 구름정원, 로즈 룸 - 실내/밤

돌잔치 중인 로즈 룸, 부 점장 의주가 돌잡이를 진행하고 있다.

의주

뭐지?... 뭘까요? 긴장된 순간! 도대체 뭘 집을까요? 꼬물꼬물 귀
여운 손이 가고 있네요! 아! 지폐? 연필!? 아! 다시 지폐?!

아기 엄마가 장난감 청진기를 슬쩍 가져다대자 아기가 이를 집어 든다.

의주

청진기! 와아!! 탁월한 선택! 우리 자연이가 훌륭한 의사선생님이
될 건가 봐요~ 어머니 뜻에 잘 따르는 효녀네요~ 자~ 박수~!!

11. 구름정원, 라일락 룸 - 실내/밤

백여 명 정도 수용 가능한 내부, 앞쪽엔 주인공을 위한 자리가 세팅 되어있고 옆쪽엔 뷔페 음식

들이 차려져 있다. 앞쪽 벽면에 붙어있는 현수막엔 '축! 김현옥 여사 고회연' 이라고 적혀있다. 밀려드는 손님들을 정신없이 맞이하는 용남의 가족. 잔치 초반의 어수선했던 분위기.

현옥과 장수를 중심으로 기념사진을 찍는 용남의 가족들.

사진사

자! 렌즈 보시고! 웃으세요!! 하나! 둘! 셋!

구 점장

와! 정말 부럽습니다! 이렇게 화목한 분위기의 가족 분들은 또 처음 뵙는 거 같습니다! 자! 이어서 케이크 커팅식을 진행해보겠습니다!

라일락 룸으로 황급하게 들어오는 의주, 구 점장이 빨리 들어오라고 눈치를 준다.

구 점장

오늘의 주인공 김현옥 여사님의 고회를 축하드리며 다들 잔을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부 점장님?

구 점장 옆에서 미소 짓고 서 있던 의주가 케이크로 다가가 라이터를 꺼내든다.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돌리는 의주, 용남이 살짝 놀란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당황한 듯 용남과 시선이 마주친 채 그대로 굳어버리는 의주.

구 점장

부 점장님... 부 점장?

의주

(황급히 초에 불을 붙이며)
아!... 예!!

구 점장

제가 선창하면 다들 위하여! 라고 함께 외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김현옥 여사님의 만수무강을 위하여!!

사람들

위하여!!

현옥이 케이크 촛불을 입으로 훅 붙여 끄자 사람들 모두 박수를 치며 축하해 준다.

12. 구름정원, 화장실 - 실내/밤

화장실로 뛰어 들어오더니 당황스런 표정으로 거울을 잠시 바라보는 의주.
손을 씻더니 이내 얼굴과 옷매무새를 가다듬기 시작한다.

13. 구름정원, 라일락 룸 - 실내/밤

음식을 담고 이동하는 사람들로 분주한 실내.
용남이 접시를 든 채 주변을 두리번거리지만 의주의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용남이 육회를 푹 떠서 접시에 담으려는 순간 곁으로 다가오는,

둘째 숙부

그런 거 먹지 마라... 이런데서 뭐 얼마나 좋은 걸 쓰겠니...

용남

(뜨려던 육회를 내려놓으며)

예...

둘째 숙부

... 너 요즘 뭐하냐? 어디 나가니?

용남

... 그냥... 좀... 알아보고 있어요...

둘째 숙부

뭘 그렇게 몇 년 동안 알아만 보고 있냐... 사람이 뭘 해보다가 안 되면 판 생각도 해보고 그래야지... 너무 욕심내다간 시간 금방 간다. 너도 곧 서른인데 부모님 생각도 해야지...

용남

네... 근데 저... 서른 넘긴 지 좀 됐는데요...

둘째 숙부

(한숨을 내쉬곤 짜증이 난 표정으로)

... 연어 그건 어딴냐?

점프.

자리에 앉아서 가득 쌓인 육회를 우걱우걱 퍼먹고 있는 용남. 옆으로 조카 지호가 지나간다.

용남

지호야! 이리 와! 삼촌이랑 같이 먹자! 어?! 여기 앉아!

(자신을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치는 지호를 보며)

아 진짜 저 새끼 요즘 나한테 왜 저래...

용혜

... 오빠, 오빠는 하루 종일 뭐해?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셋째 숙부의 딸 용혜가 멍한 표정으로 용남을 바라보며 묻는다.

용남

... 오빠는... 그냥 자 계속... 산소 낭비 하면서...

용혜

깨면?

용남

... 밥 먹고... 똥 싸고... 또 자... 우리 용혜 이제 밥 먹자?

용혜

... 와아... 존나 좋겠다! 내 꿈이 오빠처럼 사는 건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어!? 어?!

옆에 있다가 한심하단 표정으로 핀잔을 주는 용혜의 오빠,

용수

하! 너 이미 꿈 이뤘어! 얼마나 더 먹고 싸고 쳐 자야 그 꿈이 이뤄지냐?! 어휴 한심한 년... 고삼이란 게...

용혜

닥쳐라! 삼수해서 간신히 대학 간 새끼가... 아 존나 어이없네... 너 대학 가서도 혼자 변기 물에 밥 말아 먹는다며!

용수

(씹던 음식을 뱉고는)
그지? 네가 잔칫집에선 안 맞아 봤다?

용혜

밖에선 쪽도 못 쓰는 아싸 주제에! 그냥 빨리 군대로 꺼지세요!

황당한 표정의 용남, 이 때 둘째 숙부의 아들 용민이가 두 사람 사이를 파고들며 등장한다.

용민

(오 만원 두 장을 흔들며)
야야!! 어떻게... 계속 할래? 이거 받고 조용히 밥 먹을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각자 지폐를 빠르게 낚아채고 조용히 밥을 먹는 용수와 용혜.

용민

와 태세전환 빠른 거 보게!

(용남 앞에 앉으며 용남 접시에 쌓인 육회를 보고)

육회가 다 어디 갔나 했더니... 형 많이 먹었어?

용남

(김밥이 수북한 용민의 접시를 보고)

... 너 여기 왜 왔냐? 그냥 김밥천국 가지...

용민

아! 나 김밥은 못 꿔겠어! 공부 할 때 하도 먹어서 증독 됐나 봐!

용남

그래... 많이 먹어라... 세무사 되니까 좋냐? 돈 끌어모은다며...?

용민

급지... 카드를 존나 급고 다니지! 거 다 구라야!

(용남의 접시에 있는 육회를 집어 먹으며)

형은 요새 뭐해?

용혜

용남 오빠 하루 종일 먹고 자고 똥만 싸대! 짱 부럽지?

용민

야 용남 형이 무슨 갓난 애기냐? 그리고 사는 사람이 어딴냐?!

형 연애는? 공지사향 없어?

용남

... 내가... 지금 남의 집 귀한 딸내미까지 고생 시켜야겠냐?

용민

(용남의 접시에 있는 육회를 계속 집어먹으며)

아아... 혼자 살다가 죽기 전에 아! 내가 남의 집 귀한 딸내미 고생 안 시켰다... 후회 없는 생이었다... 허허허.... 뭐 이렇게 정신 승리 하면서 관 뚜껑 닫히겠다는 그런 깊은 뜻?

용남

아... 새끼 입으로 또 설사 싸기 시작하네... 그만해 임마!

용민

형! 걱정 하지 마! 지금 잠깐 안 풀려서 그러는 거지 다 잘 될 거라니까!? 내가 알아! 형 곧 상한가 간다! 올라간다니까? 파이팅!

용남

거 뭐 요즘 유행이나? 밀도 끝도 없이 막 잘 될 거라고 얘기 해주는 거? ... 사람들이 너 싫어하지? 넌 그거 잘 모르고?!

용민

아니야, 나도 알아. 나 죽이고 싶단 사람도 있어.

누군가를 발견하고 표정이 변하는 용남, 의주가 자신을 바라보며 따라오란 눈치를 주고 있다.

14. 구름정원, 비상계단 - 실내/밤

의주

어떻게 여기서 만나... 우리나라가 진짜 작긴 작다 그지?

용남

그니까... 빨리 통일을 해야 되는데 쉽지가 않네...

의주

오빠! 나 여기서 일하는 거 알고 있었어?

용남

아니?! 나 완전 깜짝 놀랐다니까! 검색하다가 하도 좋다는 글이 많아서 그냥 왔는데 어떻게 네가 여기 딱 있냐!?

의주

아... 그거 내가 다 쓴 건데... 오빠 집 여기서 멀지 않아?

용남

(말을 돌리며 의주의 명찰을 보고)

아냐 그렇게 멀지는... 와...! 너 되게 높다... 부점장님이네...

의주

높기는... 알바랑 다를 것도 없어... 오빠 요즘 뭐해?

용남

나? ... 회사... 벤처... 회산데... 과... 과장이야... 이 과장...

의주

별써?! ... 이용남 과장님... 뭔가 오빠랑 좀 안 어울린다...

용남

아... 원랜 차장이었는데 이번에 운 좋게 승진한 거야...

의주

에이 그런 게 어딴냐? 다 오빠 능력이지! 우리 몇 년 만이지?
(혼잣말로 계산하며)

나 공부 때려 친 게... 작년이니까... 어... 우리 4년 만이네!

용남

아... 그렇게 오래 됐나...?

의주

맞아! 내가 계산은 정확하잖아! 암튼 오랜만에 보니까 되게 반갑
다... 오빠가 나 편하게 대하는 거 같아서 더 좋고...

용남

야... 뭘 소리야? 내가 너 안 편할 게 뭐가 있어?

인서트. 과거, 오후의 공원. 용남의 시점으로 보이는,

의주

오빠 미안해... 난 그냥 우리 지금처럼 편한 오빠 동생 사이로...

다시 현재.

용남

아아... 그때 내가 고백 비스 무리한 거... 그랬지? 야! 그거 그랬
다고 네가 불편해? 내가 뭐 충격 받고 울고불고 그랬을까봐?

인서트.

- 과거, 오후의 공원. 의주를 뒤로하고 서럽게 울면서 걸어가는 용남.
- 버스 정류장, 가슴을 부여잡고 통곡하는 용남.
- 버스 안, 창에 기댄 채 울고 있는 용남.
- 용남의 방, 멍한 표정으로 누워 있는 용남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린다.

다시 현재.

용남

아니야! 나 그냥 별 일 없이 잘 살았는데? 지금 네가 얘기하니까
생각나네! 와... 잊고 있었나 보다... 맞아 그런 일이 있었네...

의주

그래? 난 그 뒤부터 오빠가 날 피하는 거 같아서... 좀 그랬거든...
에이... 기억도 안 나는 일 가지고 나만 괜히 오버했네!
(손목시계를 바라보곤)
아이고... 암튼 오빠! 어머니 칠순 축하드려! 이따 또 봐!

용남

어어!! 그래... 고맙다...

황급히 계단을 내려가는 의주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푹 내쉬는 용남.

15. 구름정원, 라일락 룸 - 실내/밤

첫째 매형, 셋째 매형

(무대에서 신나게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는)

장모님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장모님 향한 나의
사랑은 특급사랑이야~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테이블 쪽에선 여러 어른들에게 술을 따르고 있는 용남의 모습이 빠른 편집으로 보여진다.

용민

(무대에서 분위기를 휘어잡으며)

자신에게 실망 하지 마 모든 걸 잘할 순 없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면 돼 인생은 지금이야 아모르 파티~!

셋째 숙부

이놈을 내가 그때 해병대로 밀어 넣어버렸어야 했는데! 해병대
나왔음 네가 지금 이려고 있겠냐! 우린 충성 아니거든 어?!? 필
승! 어! 너 알아? 필승? 한 번 해봐! 필! 승!!

점프.

영혼이 다 빠져나간 표정으로 구석 테이블에 앉은 채 술을 벌컥벌컥 들이키는 용남.

무대에선 용남의 누나들이 춤을 추며 신나는 노래를 부르고 있다.

용남에게 인상을 쓰며 빨리 나오라고 사인을 보내는 정현, 용남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든다.

점프.

무대에서 노는 어른들 사이에 박수를 치며 어색하게 웃고 있는 용남.

시간이 점점 흐르며 손님들이 하나 둘 빠지는 모습들이 보여진다.

손님들을 배웅하는 장수, 친척들이 내미는 봉투를 안 받으려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무대에서 마이크를 잡은 채 씩스러운 표정으로 노래를 시작하는,

현옥

야야야야~ 내 나이가 어째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인데~

손사래 치며 마이크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현옥.

첫째 매형이 현옥을 업더니 무대를 돌아다니기 시작한다.

두 팔로 덩실덩실 춤을 추는 현옥과 주변에서 장단을 맞추는 가족들.

옆에서 박수를 치며 이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용남, 뭔가 망설이는 표정이다.

현옥이 그만하라며 첫째 매형 등에서 내리려는 순간, 현옥을 업으려 다가가는 용남.

셋째 매형이 냉큼 현옥을 업자 타이밍을 놓친 용남이 엉거주춤 하며 자연스레 박수를 이어 친다.

내부에서 상황을 살피던 의주가 시간을 확인하고 한숨을 내쉬며 뒀 밖으로 나간다.

16. 구름정원, 중앙 홀 - 실내/밤

중앙 홀에 모여 있는 알바생들에게 다가오는 의주.

알바1

언니! 몇 분 예상해요?

의주

... 하... 이 팀은 감이 안 온다... 그냥 맘들 비워...

실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푹 숙이는 알바생과 조리실 직원들.

알바2

아... 구점 이 새끼 분명히 또 봉투 받았다!

알바1

와... 있는 놈들이 더해... 진짜 이해 안가지 않냐? 이 건물하고 가
게가 우리 아빠 거면 난 여기서 이 일 안하지.

알바2

대장놀이 하는 게 재밌나 보지... 딴 데선 못 할 텐데...

갑자기 나타나서 다가오는,

구 점장

모여서 뭐하는 거지? 아~ 할 일이 없다? 흠... 내가 몇 번을 말한
거 같은 데? 일을 기다리지 말고 찾으라고... 최고의... 최고의?

의주와 알바들

최고의 서비스!! 고객만족! 우리는 구!(짹) 림!(짹) 정!(짹) 윈!!

구 점장

그냥 외치지만 좀 말고 새겨라 어?! 프로정신 좀 가지라고!
(말없이 고개 숙이고 있는 알바생들을 바라보다가)
휴... 라일락 빼고 다 정리 된 거지?

의주

로즈 끝나긴 했는데... 애들이 자서 좀만 있다 가신대요.

구 점장

(시간을 확인하고)
흠... 다들 퇴근해... 마감은 나랑 부 점장이랑 할 테니까...
(어리둥절해서 눈치만 살피는 알바생들을 보며)
가라고! 근무 시간 끝났잖아! 뒷정리는 내일 일찍 와서 하고, 다
들 수고했어!

알바생들

예~ 진짜요?! 와~ 점장님! 점장님! 점장님!!
(점장님을 외치더니 밖으로 나가며)
점장님 사랑합니다! 와! 수고하셨습니다!!

구 점장

어휴 단순한 새끼들...
(알바들이 사라지자 의주를 바라보며)
자기 생각 좀 해봤어? 내가 시간 많이 준 거 같은데...

의주

네?

구 점장

...내가 새벽에 카톡 보냈잖아... 아직도 고민 하고 있는 거야? 아
니 누가 뭐 결혼하재? 복잡할 거 없어 그냥 한 번 만나보자는 건
데... 자기 결정 장애 같은 거 있구나? 나 가볍게 생각하고 오퍼
한 거 아닌데...
(의주의 어깨를 만지며)
나 되게 진지해... 어? 자기 명찰에 뭐 묻었다...

손수건을 꺼내며 의주 명찰 쪽으로 손이 가는 구 점장.

잠시 밖으로 나왔던 용남이 먼발치에서 둘의 모습을 바라봤다가 이내 사라진다.

구 점장

아... 아...

(의주에게 손목이 꼭 잡혀서)

아퍼... 닦아줄려 그런 거야... 명찰에 뭐 묻었다고!

의주

(구 점장의 손목을 놓으며)

점장님! 저 결정 장애 같은 거 없고요! 지금 말씀드릴게요!

구 점장

아니야! 좀 더 생각할 시간 줄게!!

의주

아니 지금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옷을 갈아입은 알바생들이 웅성거리며 등장하자 표정이 싹 변하는,

구 점장

부 점장! 나 사무실에 있을 테니까 마감 다하면 불러! 알았지?!

자리를 뜨는 구 점장, 불편한 내색을 감추며 퇴근하는 알바생들에게 인사를 하는 의주.

17. 도로 - 실외/밤

일호가 운전 중인 기괴한 외형의 탱크로리 트럭이 도로를 달리고 있다.

구시가지 배경의 도로를 달리던 탱크로리가 빌딩들이 운집한 신시가지로 진입한다.

퇴근하는 사람들, 가게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 일상의 공간을 스쳐 지나가는 탱크로리의 모습.

몇몇 사람들이 탱크로리의 기괴한 모습에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본다.

달리는 탱크로리의 진행 방향 저 너머로 우뚝 솟은 앤서화학 빌딩이 보인다.

18. 구름정원, 라일락 룸 - 실내/밤

창문 밖 멀리 앤서화학 신축빌딩 꼭대기에서 빛나고 있는 로고가 보인다.

노래 '칠갑산' 전주가 흐른다. 감정을 잡으며 첫 소절을 부르려 입을 여는,

첫째 매형

코웅발~ 메에에~

(반주가 똑! 쿡기고)

... 어?

정현
(반주기 리모컨을 들고 남편을 바라보며)
그만해 다 가셨어! 콩밭에 누구 숨겨놨어? 뭘 이리 애타게 찾아?

둘러보면, 용남네 가족과 둘째, 셋째 숙부 가족들까지 스무 명 남짓 남아있다.

정현
자! 다들 정리하세요! 갑시다!!

현옥이 남은 음식을 비닐봉지에 담고 있다. 이 모습을 보고 놀라서 다가오는,

용남
엄마... 지금 뭐하는 거야... 이거 싸 가는 거 아니야! 왜 이래!!

현옥
괜찮아... 원래 다 이러는 거야...

용남
(다가오는 정현을 바라보며)
누나! 엄마 줌!

정현
엄마 뭐해!... 동그랑땡 좀 많이 넣어! 애들이 먹을 걸 넣어야지!

용남이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리면, 장수가 먹다 남은 소주병을 한테 모아서 백 팩에 담고 있다.

용남
다들 미쳤어... 하지 말라고! 걸리면 이거 큰일 나! 잡혀간다고!!

현옥
아니 애가 뭐 이리 새가슴이야!! 큰일 나긴 뭐가 큰일 나!!
(누군가를 바라보며)
저기! 이거 좀 싸가도 괜찮죠? 그죠?

의주
(어느새 옆에 와 있는)
그럼요 괜찮습니다! 제가 지퍼백 좀 더 갖다 드릴게요.

라일락 룸에서 나가는 의주. 순간적으로 용남의 표정이 일그러진다.

정현
(무대 쪽에서 마이크를 잡은 채)

야! 이용남! 빨리 나와! 마지막으로 노래 하나 부르고 가게!

용남

진짜 다들 왜 그래... 왜들 그러냐고! 왜에!!

19. 앤서화학, 내부 도로 - 실외/밤

앤서화학 내부 도로로 천천히 진입하는 일호의 탱크로리가 정문 로비 앞에 주차를 한다.
운전석의 일호, 꽂혀있던 차키를 부러뜨리고 옆에 있던 원형의 금속 밸브를 들고 밖으로 나간다.
뒤편 두 개의 탱크에 붙어있는 밸브들을 각각 돌리는 일호.
옆으로 이동해 툭 튀어나온 작은 금속 꼭지에 들고 온 원형 밸브를 끼우고 돌리기 시작한다.
다 돌린 뒤 금속꼭지에서 원형 밸브를 떼더니 멀리 던져버리는 일호.
원형 밸브가 몇 번 튕겨지더니 굴렁쇠처럼 빠르게 굴러가며 건물 밖으로 사라진다.
얼굴에 쓰고 있던 방독면을 벗어 떨어뜨리는 일호, 뒤편으로 경비원들이 등장한다.

경비원

(다른 경비원과 함께 밖으로 나오며)

저기요? 어떻게 오셨어요?

(대답이 없자 일호 쪽으로 다가오며)

어디서 나오셨냐고요? 여기 주차 하시면 안돼요! 저기요!

(일호의 어깨를 잡고 돌리며)

뭐야... 아저씨! 이거 뭐예요? 지금 여기서 뭐하시는 거냐고요!?

감정을 읽을 수 없는 일호의 표정, 갑자기 중얼거리기 시작한다.

경비원

에? 뭐라고요?

탱크로리에서 나는 기괴한 소리에 고개를 돌려 바라보는 경비원.
순간! 탱크에 달린 여러 개의 분사구에서 푸석!! 소릴 내며 빠르게 분출되는 하얀색 가스.
일호와 경비원들의 모습이 순식간에 가스에 덮이며 사라지고, 주변으로 가스가 퍼져 나간다.

20. 몽타주, 본격 재난의 시작 - 실내,외/밤

구름정원, 라일락 림.

'어머님 마음' 합창을 시작하는 용남과 가족들, 현옥이 씩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다.

용남과 누나가족들

나실 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앤서화학 근처 도로.

일호가 던진 원형 밸브가 굴렁쇠처럼 멀리서 데굴데굴 굴러온다.
힘이 다했는지 멈추려는 순간, 누군가의 발이 등장하더니 원형 밸브를 밟아버린다.
키크보드를 옆에 세우고 원형 밸브를 들어 유심히 바라보는 여학생,
이상한 낯세에 앞을 바라보면 하얀색 가스가 주변으로 빠르게 퍼져가고 있다.
놀란 표정을 지으며 뒷걸음치기 시작하는 여학생.

구름정원, 라일락 릉.

용남과 누나가족들

하늘아래 그 무엇이... 흑흑... 넓다 하리요~ 으흑흑... 어머님의 회
생은 가이 없어라~ 으형형형...

정현

엄마! 미안해!... 사랑해! 으흑흑!!

둘째 누나

엄마 앞으로 내가 잘할게! 흑흑...

셋째 누나

흑흑... 엄마!! 건강하게 오래 오래 사세요!!

용남

(눈에 그렇그런 눈물을 참으며 말을 잊지 못하고)
흑... 어... 엄...

길거리.

골목으로 퍼져가는 하얀 가스. 사람들은 바닥으로 깔리는 가스를 신기하게 바라만 보고 있다.
가스를 배경으로 셀카를 찍으려는 한 무리가 포즈를 잡고 있다가 순식간에 가스에 묻혀 버린다.
가스를 흡입한 모두 콜록대며 고통스러워 하다가 쓰러져 발버둥치기 시작한다.

카페.

별책 문을 열고 들어오는 한 남자, 가스를 흡입한 듯 고통스러워하다 바닥으로 쓰러진다.
이를 보고 놀란 사람들이 소릴 지르며 밖으로 도망치기 시작한다.

실외 흡연부스.

사람들로 가득 찬 흡연부스. 담배연기 자욱한 부스 안으로 가스가 빠르게 밀려들어간다.

편의점.

사방에서 밀려오는 가스를 피해 근처 편의점으로 들어가려는 사람들, 문이 잠겨있다.
유리문을 두들기는 사람들을 보며 문에서 멀리 물러나는 편의점 안 알바생과 손님들.

다급하게 유리문을 두들기던 손이 하얀색 가스에 덮여 점점 사라지다가 완전히 자취를 감춘다.

차 안, 주유소.

가스에 정신을 잃은 운전자의 차, 폭주하며 도로를 가로질러 주유소를 향해 돌진한다.

구름정원, 주방.

탁! 큰 통에서 아이스크림을 펴서 접시에 담고는 한 스푼 떠먹는,

의주

(이어폰을 낀 채 친구와 통화를 하며)

어? 진짜? 확실해? ... 근데 나한테 왜 그렇게 말했지...?

(평! 멀리서 들리는 폭발음에 고개 돌리다가)

아니야... 별 말 아니야... 아~ 빨리 집에 가고 싶다... 오늘 하루

왜 이렇게 기나...

지하철 센트럴 역.

앤서화학 근처에 위치한 역사 아래로 흘러 들어오는 하얀색 가스.

도망가던 사람이 문이 닫히기 직전 간신히 전동차에 올라탄다.

전동차가 출발하고 플랫폼 아래로 내려 온 가스가 전동차에서 내린 사람들을 집어 삼킨다.

놀란 표정으로 소릴 지르며 바깥상황을 바라보는 전동차 안 사람들.

도로.

고압가스통을 가득 싣고 달리는 트럭,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 때문에 급정지한다.

트럭운전자

으혁!... 씨... 야이!...

옆에서 다가오는 하얀 가스를 바라보는 운전자, 불붙은 탱차가 가스를 뿜고 돌진해온다.

구름정원, 라일락 룸.

밖에서 들리는 쿵!! 소리에 놀라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용남과 가족들,

이어서 연속으로 터지는 평! 퍼평! 소리에 놀라 깜짝 놀라 몸을 움츠린다.

갑자기 슈웅!! 소리와 함께 유리창을 와장창 부수며 라일락 룸으로 무언가 날아들자 소릴 지르며 바닥으로 주저앉는 사람들.

잠시의 고요함, 사람들이 천천히 고개 들어 바라보면 바닥에 뒹굴고 있는 고압가스통이 보인다.

평! 퍼평! 외부에서 다시 가스통 터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자 가족들을 바라보며 소릴 지르는,

셋째 숙부

저... 저거 터진다!! 여기서 나가!! 밖으로 나가! 빨리!

구름정원, 복도.

우르르 몰려나오는 용남과 가족들. 반대편에서 달려온 의주가 용남을 붙잡는다.

의주

뭐야! 방금 그거 무슨 소리야?!!

용남

밖에서 가스통 같은 게 날아 왔는데! 유리창 다 깨부수고!! ... 여
기서 나가야 돼! 언제 터질지 몰라! 빨리!
(자신의 손을 뿌리치고 출구 반대로 달려가는 의주에게)
의주야!! 어디가! 나가야 된다고!!

구름정원, 로즈 룸.

소화전 벨을 누르고 돌잔치를 하던 방으로 들어와 사람들에게 소리 지르기 시작하는,

의주

건물 밖으로 나가세요! 빨리요! 빨리 나오세요!!

놀라서 아기를 안고 밖으로 나가는 돌잔치 부부와 친구들.

21. 구름정원 건물 밖 - 실외/밤

밖으로 몰려나오는 사람들, 주변 분위기가 이상하다.

가족들을 건물 앞에 세워둔 채 대로 방향을 향해 달려가는 용남과 사촌들.

언제 나왔는지 대로에 있는 구 점장, 뭔가 보고 놀란 표정으로 다시 구름정원 방향으로 달려간다.

건물 코너를 돌아 대로 쪽으로 나오는 용남과 사촌들, 뭔가를 보고 다들 놀란 표정으로 변한다.

300여 미터 떨어져 있는 고층 빌딩숲이 마치 화재가 난 것처럼 하얀색 가스에 휩싸이고 있다.

용남이 있는 쪽으로 소리 지르며 도망쳐 오는 수백 명의 사람들.

돌잔치 가족들을 데리고 건물 밖으로 나온 의주가 용남 쪽으로 달려와 현재 상황을 발견한다.

멀리 도망쳐 오는 사람들을 바라보면 뒤로 다가온 가스가 사람들을 집어삼키고 있다.

가스에 휩싸인 사람들이 기침을 하며 바닥으로 쓰러지고 경련을 일으킨다.

가스 너머로 뭔가 터지며 충돌하는 소리와 사람들의 비명들이 울려 퍼진다.

놀라서 다시 구름 정원 쪽으로 달려가는 용남의 가족들과 의주.

의주

(사람들에게 소리치며)

올라가세요! 건물로 다시 올라가요! 빨리요! 빨리!

용남의 가족들과 돌잔치 부부가 구름정원 건물로 우르르 뛰어 들어간다.

지호

(용남을 붙잡으며)

삼촌! 삼촌!! 엄마가 안 보여!!

용남

뭐?!

지호

엄마가 없다고! 안 보인다고!!

용남

누나... 큰 누나아!

그 때, 뽕뽕! 울리는 경적소리에 돌아보면 정현이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끌고 나오고 있다.

정현

(용남에게 손짓을 하며)

야! 엄마 아빠 모시고 와!! 빨리!!

용남

(정현의 차 뒤로 밀려오는 가스를 발견하고)

누나 나와... 빨리 차에서 나오라고!!

정현

어?!

(차창 옆으로 빠르게 다가오는 하얀 가스를 보고)

어헉...

지호

(갑자기 정현에게 달려가며)

엄마아! 엄마!!

용남

(지호를 잡고 말리며)

의주야! 애 좀 데리고 먼저 올라가!!

의주가 지호를 데리고 건물로 들어간다.

급하게 차에서 내려 달리다가 한복치마에 걸려 앞으로 쓰러지는,

정현

아악!!

(순식간에 바닥으로 깔린 가스를 들이마시고)

헉... 커헉...!

용남

(정현에게 달려가며)
누나아! 누나!!

순간적으로 벌떡 일어나 가스에서 빠져 나오지만 이내 콜록대며 비틀거리기 시작하는,

정현
어헉... 아!... 아아!! 콜록... 콜록... 커헉... 커... 커헉...

용남
(쓰러지는 정현을 부축하며, 독한 냄새에 코를 막고)
흡! 누나! 콜록!! 왜 이래!! 누나아! 콜록!! 누나!!

가스가 스멀스멀 다가오며 용남과 정현의 주변을 에워싸기 시작한다.

22. 구름정원 입구, 중앙홀 - 실내/밤

셋째 숙부
이거 전쟁이야! 전쟁 난거라고! 뭘 쓴 거야 이 새끼들이!!

둘째 숙부
뭘 헛소리야! 전쟁은 무슨!! 도시 가스 같은 거 터졌잖지!

지호를 데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는 의주.

현욱
... 지호야! 엄마랑 삼촌 어디 갔어?! 어?!

지호
영영영! 엄마... 아래... 영영... 삼촌이... 영영!

장수
(의주를 바라보며)
아가씨!! 애가 지금 무슨 소릴 하는 거예요!? 예?!

땡!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정현을 업고 나오며 소리치는,

용남
비켜! 나와! 앞에 나오라고!!

놀란 가족들이 소릴 지르며 용남을 따라 이동한다.
정현을 탁자 위에 눕히고 팔 다리를 주무르기 시작하는 가족들.

현옥

정현아!! 너 왜 이래!! 정신 차려!! 정현아!!

장수

이거 무슨 냄새야!! 네 누나 왜 이러는 거야아!

용남

누나 정신 차려봐! 누나! 누나아!!

첫째 매형

(덜덜 떨며 119에 전화를 걸고)

여보세요! 여기 구조대 좀 빨리 보내주세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상황이... 용남아!! 누나가 어떻게 쓰러진 거야!!

용남

(매형에게 핸드폰을 뺏어 들고)

여보세요!! 우리 누나가 무슨 이상한 연기를 맡았는데! 지금 숨도
잘 못 쉬고 눈도 못 떠요! 어떡해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무
슨 연긴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 이 동네에 하얀 연기 같은
게 퍼지면서 사람들이 다 쓰러지고 있다구요! 네! 물이요?! 네!
(구 점장을 보며)
여기! 여기 주소! 주소 뭐예요! 빨리!!

구 점장

(정신을 못 차리고)

... 주소... 주소가... 암길동...

의주

(용남에게 핸드폰을 뺏어들고)

암길동 32-1 라이온빌딩 6층 구름정원이에요!! 빨리 좀 와주세요!!

용남

(옆에 있는 작은 생수병을 들고)

겉옷 빨리 벗기고 물로 피부 닦아주래!!

정현의 겉옷을 벗기고, 주변에 있던 생수를 천에 적서 정현의 몸과 얼굴을 닦아주는 가족들.

첫째 매형

정현아! 나 여기 있어! 괜찮아! 괜찮을 거야 겁먹지 마!

용남

누나! 좀만 참아 119 금방 올 거야!

현옥

으흑흑흑! 119 좀 빨리 오라고 그래! 빨리! 정현아... 흑흑...

구점장이 홀에 있던 대형 TV를 켜다. 채널을 계속 돌려보지만 아직 속보는 나오지 않고 있다.
창가로 달려가는 용남과 의주,

용남

(창밖을 바라보며)

... 씨... 이거 뭐야 진짜...

주변이 마치 안개에 휩싸인 듯 도로와 낮은 건물들은 가스에 가려 보이지 않는 바깥의 상황.
구석에 있던 돌잔치 부부는 특히나 불안한 표정이다.

아기 엄마

옴!! 우리 어떻게... 어?! 흑....

아기 아빠

괜찮아... 별 일 아닐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마...

길 건너편 건물에 세로로 길게 달린 간판의 맨 아래 글자가 올라오는 가스에 의해 서서히 가려
저간다. 이 모습을 발견하고 놀란 표정으로 가족들에게 달려가는,

용남

다들 옥상으로 올라가요!! 빨리요!! 여기 있으면 위험해요!

둘째 숙부

지금 뭘 소리 하는 거야!! 밖으로 왜 나가!!

용남

밖에 저거 뭘진 모르겠는데 위로 올라오고 있다구요! 여기 가만
있다간 큰일 나요!! 높은 데로 가야 된다고요!

셋째 숙부

저게 뭐든 문 꼭 닫고 있음 괜찮은 거 아냐?!

용남

그런 거 소용 없어요!! 누나 이렇게 된 거 안 보이세요?!

(정현에게 달려가서 일으키며)

누나 내가 일으킬 테니까 좀만 참아!

용남이 몸을 일으켜 세우자 숨을 헐떡이며 고통스러워하는 정현, 이내 숨이 넘어갈 듯하다.

첫째 매형

용남아 그만 해! 누나가 숨을 못 쉬잖아!!

용남

(다급한 표정으로 정현의 어깨를 잡으며)

매형!! 누나 다리 좀 잡아요!! 빨리요!!

의주

(대걸레 두 자루와 테이블보를 들고 용남 쪽으로 달려오며)

용남 오빠!! 여기!!

테이블보 위에 대걸레를 나란히 놓더니 순식간에 운반용 들것을 만드는 두 사람.

용남

(매형과 함께 정현을 들것으로 옮기며)

아빠! 엄마! 뭐해! 다 데리고 옥상으로 가라고! 빨리!!

현옥

... 지호랑 민지 할머니한테 와!!

장수

다들 가자고! 뭇들 해! 여기 있음 위험하다잖아!

용남

(눈치만 살피고 있는 가족들에게)

뭐해요?! 올라가라고요!! 내 말 좀 들어요! 제발!!

그 때 찌이잉!! 소리와 함께 모두에게 전달되는 긴급재난문자.

<국제미래신도시 유독가스 확산 중. 고립 상황 시 건물 옥상이나
고지대로 대피 후 구조요청 바람. -통합재난처 긴급재난문자->

재난문자를 읽고 다들 놀라서 표정이 변하는 사람들.

구 점장

(갑자기 나타나서)

여러분! 다들 저 따라오세요! 옥상은 이쪽입니다! 빨리요!!

사람들이 모두 구 점장을 따라 밖으로 우르르 몰려 나간다.

23. 소방 3호 헬기 - 실외/밤

고층과 저층 빌딩 블록의 구별이 확연한 국제미래신도시 상공을 비행하는 소방 3호 헬기.
허 기장과 부기장, 구조대원 재민을 포함해 다섯 명이 탑승 중이다.

허 기장

재민아!! 어디까지 퍼졌나?!

재민

센트럴 역 중심으로 신시가지 뉴비즈 역에서 구시가지 쪽은 암길
역 까지 도달한 거 같습니다!

허 기장

...하... 뭘 놈의 유독가스가 꼭 안개 낀 것처럼 저러나...

헬기가 지나간 상공 아래로 구름정원의 간판이 빛나고 있다.

24. 구름정원, 옥상 문 앞 - 실내/밤

사람들이 옥상 출구 쪽으로 우르르 몰려온다. 옥상 문 손잡이를 잡고 돌리는 셋째 매형, 철컹!

셋째 매형

어?! 이거 왜 이래! 이거 왜 안 열려!!

구 점장

나와 보세요! 이게 자동 잠김이라 열쇠가 있어야... 아...!

(뭔가 생각난 듯 난감한 표정으로 용수에게)

학생! 일층 가면 경비실 있거든 가서 열쇠 좀 달라 그래! 빨리!!

용수

예? 제가요?

의주

지금 경비실에 어떻게 가요! 가스가 들어왔는데!

(구 점장에게 다가가 조용히)

스페어 키는요?! 점장님이 갖고 계시잖아요!!

구 점장

(난간 아래로 보이는 가스를 바라보며 조용히)

... 없어... 그... 열쇠를 내가...

용민

(구 점장의 말을 옆에서 듣고는)

열쇠가 없다고?

첫째 매형과 함께 정현을 들것에 싣고 나타나서 소리치는,

용남

안 나가고 뭐하는 거야!!

용민

옥상 문이 잠겼어!! 근데 열쇠가 없대!

용남

뭐?!!

25. 중내천 방어선 - 실외/밤

국제미래신도시를 두르고 있는 하천 '중내천', 그 위로 200미터 길이의 다리가 놓여있다.

다리 바깥에 경계라인을 치고 마스크를 쓴 대원들이 안쪽으로의 출입을 막고 있다.

도망쳐 온 사람들이 구급요원들에게 처치를 받고 있다.

설치 중인 현장본부텐트와 장비들 사이에서 간이 테이블에 지도를 펼쳐놓고 회의 중인 사람들.

소방부서장

현재 센트럴 역으로부터 약 500미터 떨어진 암길 역까지 가스가 퍼진 상황입니다. 일단은 뉴비즈 역과 암길 역 사거리까지 오염 지역으로 설정, 중내천을 경계로 준 오염지역으로 설정했고, 반경 3킬로미터 내에는 주민대피령을 내렸습니다!

(태블릿PC를 보여주며)

현재 사고 지역 상공입니다.

소방서장

(떨리는 눈빛으로 태블릿PC 화면을 바라보며)

탐수팀은 아직이야?! 이게 뭔지 알아야 대응을 하든가 하지!!

26. 가스 속 - 실외/밤

차들에 가로막혀 분석차량을 버린 채 달리고 있는 탐지 수거팀 대원들.

질은 가스 속으로 달려 들어와 빠르게 장비를 꺼내 유독가스 시료를 수거하고, 분석에 돌입한다.
삐릭! 소리와 함께 분석 결과가 뜨자 놀란 눈빛으로 변하는,

탐수팀장

... 이게 뭐야... 이거 왜 이래... 야! 탐지기 다른 거 줘봐! 빨리!!

27. 구름정원, 비상계단 - 실내/밤

헐떡거리는 정현 옆에서 울먹이며 정신없이 부채질을 하는 현욱과 장수, 누나들, 첫째 매형.
다른 가족들은 모두 핸드폰을 붙잡고 계속 신고전화를 걸거나 카톡 메시지를 날리고 있다.
용남과 남자들이 옥상 문 손잡이를 잡고 돌리며 계속해서 열어보려 시도 중이다.

셋째 매형

(구 점장을 바라보며)

아이씨! 어떻게 좀 해봐요! 아저씨가 여기 책임자잖아요!!

구 점장

제가 무슨 여기 책임자예요! 열쇠가 없는데 어떻게 문을 열어요!
누가 와서 따주든 밖에서 열어줘야 한다고요!

의주

점장님! 가만있지 말고 저랑 같이 내려가서 열쇠 찾아봐요!! 네?!

구 점장

몇 번을 말해!! 없다고!! 잃어버렸다고!!

의주

(구 점장을 끌고 계단 아래로 내려가며)
그래도 찾아보자고요!!

장수

(헐떡거리는 정현을 보다가 욱하며)

아니 왜 이렇게 감감무소식이야!! 다시 신고 전화 넣어 빨리!!

순간, 찌잉! 모두에게 동시다발로 전송되는 문자메시지, 다들 핸드폰을 들어 내용을 확인한다.

'국제미래신도시로 대단위 구조 헬기급파, 사고지역에서 고립되
신 분들은 119 신고 후 건물 옥상이나 고지대에서 대기바랍니다.
- 통합재난처 긴급재난문자-'

문자를 확인하고 표정이 변하는 사람들, 모두 옥상 문으로 우르르 달려들어 열어보려 애를 쓴다.

셋째 숙부

그냥 부셔!! 어떻게든 열어봐!! 여기 도끼나 망치 같은 거 없어?!

28. 구름정원, 중앙홀 - 실내/밤

용남, 용민, 용수, 용혜, 매형들이 구름정원 내부로 몰려 들어온다.

홀 대형 TV에서 나오는 속보를 보고 있는 의주와 구 점장을 발견하고 다가오는 사람들.

통합재난처 대응팀장

직접 노출 시 피부와 안구 화상, 호흡기 손상으로 인해 수분 내 사망에 이르게 하는 유독성의 가스임이 확인되었지만 정확한 종류나 성질 파악이 어려운 관계로 현장에서 시료 수거 후 정밀분석을 위해 연구소로 이동 중인 상황입니다.

놀란 표정으로 TV를 바라보는 사람들.

통합재난처 대응팀장

현장 테스트 결과 올해 공공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보급된 신형 방독면 사용이 가능하단 점 알려드립니다. 사고 현장에 고립되신 분들께선 위급 시 방독면 꾸러미를 열고 두 개의 정화통 중 보라색의 필터를 장착하신 뒤 옷이나 비닐로 피부를 최대한 감싸고 안전지역으로 대피하시면 되겠습니다.

TV를 보던 구 점장이 슬쩍 어디론가 사라진다.

통합재난처 대응팀장

방독면 사용시간은 느린 호흡 시 15분, 빠른 호흡 시 10분 이내로 사용을 권장합니다. 이후엔 오염으로 인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사용방법은....

용민

그냥 십 분 밖에 못 쓴단 소리잖아! 이런 상황에 누가 걸어 다녀!

셋째 매형

(의주를 보며)

여기 방독면 같은 건 없어요?!

의주

잠시 만요!!

카운터 쪽으로 달려가는 의주, 아래 서랍을 열고 뭔가를 찾기 시작한다.
방독면이 보이지 않자 당황한 표정으로 구 점장에게 달려가는,

의주

점장님! 카운터 서랍장에 있던 방독면 못 보셨어요?!

구 점장

방독면?...

의주

네! 확실히 세 개 있었어요!! 연초에 지급받은 거!!

용혜

(사람들에게 핸드폰으로 트윗을 보여주며)

높은 빌딩 쪽은 헬기 구조 시작했대요!! 벌써 누가 사진 찍어 올렸어!!

29. 앤서화학 옆 고층빌딩 - 실외/밤

옥상 헬리포트로 다가오는 육군의 대형수송헬기.

옥상에서 대기 중인 사람들의 모습 너머로 구름정원이 있는 구시가지의 전경이 보인다.

30. 구름정원 - 실내/밤

라일락 룸.

깨진 유리창 사이로 고갯 내미는 용남, 용민, 용수, 용혜, 매형들.

멀리 신시가지 고층 빌딩들 주변으로 대형 헬기가 모여들고 있다.

다 함께

어! 여기요! 사람 살려요! 살려주세요! 여기라고!!

헬기의 시점으로 보면 멀리 떨어져 어두운 곳에 있는 용남 일행이 보일 리 없다.

아래를 바라보는 용남, 가스가 어느 새 3층까지 올라와 있다.

뷔페 음식을 뜨는 긴 스푼과 스테인리스 쟁반을 가져와 두들기며 처절하게 소리치는,

다 함께

여기 좀 보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야!! 여기부터 오라고!! 사람이 다쳤다고!! 크흑!! 여긴 왜 안 오는 건데!! 왜에!!

용혜

(뒤에서 핸드폰을 보며 불안한 목소리로)
건물이 낮으면 헬기 구조 힘들대...! 전직 구조대원 트윗인데... 헬
기도 몇 대 없어서...

용수

(용혜의 핸드폰을 뺏어 집어던지며)
아 진짜 씨! 작작 좀 해라! 너 인터넷 말을 다 믿냐?!

용혜의 말을 듣고 표정이 변하는 용남, 고개를 들어 구름정원 옥상 쪽을 바라본다.

31. 구 점장 사무실 - 실내/밤

사무실을 뒤지며 열쇠를 찾는 의주와 구 점장.

구 점장

자기 진짜 내 말은 안 믿는구나? 진짜 잃어버렸다고!!

의주

(구 점장의 잠긴 책상 서랍장을 열려고 애쓰며)
여기 서랍은요!! 여기 좀 열어보세요!!

구 점장

거기 절대 없어! 올라가자!! 빨리!!

의주

혹시 모르니까 열어...!

구 점장

없어! 없다고!! ... 잃어버린 키 지갑 안에 그 서랍 키랑 옥상 키
랑 같이 들어있었던 말야!

32. 구름정원, 중앙 홀 - 실내/밤

카운터를 비롯한 주변을 뒤지며 도구가 될 만한 걸 찾아 용남에게 가져오는 사촌동생들.

용민

(집게나 드라이버를 찾아 들고 와서)
형! 이거 어때! 틈 사이에 지렛대처럼 넣어서!!

용남

(TV화면에 집중하며)
잠깐만!

홍성혁 전 중앙구조단장 (전화 인터뷰)
사고지역인 국제미래신도시는 고층 건물로 이루어진 신시가지와
상대적으로 저층 건물인 구시가지로 나뉘어져 있는데...

인서트. 가스로 휩싸인 국제미래도시를 비행하는 헬기 이미지 위로-

홍성혁 전 중앙구조단장 (전화 인터뷰 소리)
신시가지와 달리 구시가지 저층 빌딩 지역은 대형 헬기로 구조가
어렵습니다. 주변 여건으로 인해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거든
요... 구시가지 쪽은 신형 구조 바스켓 장착이 가능한 소방헬기
몇 대가 곧 투입된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구시가지 쪽에 고립되
신 분들께선 신고 후 옥상에서 침착하게 대기하고 계시면...

용혜

거봐!! 내 말 맞잖아!! 헬기 몇 대 없다고!!

용민

그럼... 신고를 먼저 했다 한들... 먼저 눈에 띄는 사람들부터 구조
되는 거 아냐...? 우리 어떻게하지... 형... 용남이 형... 어디 갔어...?

갑자기 용남이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다. 이 때, 중앙홀로 뛰쳐나오는 구 점장.

용수

방독면만 있으면 일층에 가서 열쇠 가져 오면 되는 건데... 씨...

용수의 말을 듣고 갑자기 어디론가 달려가는,

구 점장

(구석 서랍장에서 방독면을 꺼내며)
어! 여기 방독면 있다!! 방독면 여기 있어 학생!!
(방독면 꾸러미를 들고 뛰어오며)
방독면이 있었어!! 학생 달리기 빠르지! 경비 아저씨 책상 서랍에
열쇠 있거든?! 내가 위치 어딘지 그려줄게!

용수

예?!

구 점장

찾기 쉬워! 로비 왼쪽에!!

용민

이 양반아! 열쇠 어딘는지 알면 당신이 가면 되잖아! 왜 애한테!!

구 점장

갈 수 있음 가지! 나 천식 있어! 좀만 달려도 호흡곤란 온다고!!

용민

거짓말 하지 마! 내가 아까 당신 담배 피는 거 봤는데?!!

33. 구름정원, 측면 공간 - 실내/밤

공구 가방을 들고 복도를 뛰어오는 의주, 복도 끝에서 밖을 바라보고 있는 용남을 발견한다.

의주

오빠... 거기서 뭐하는 거야...?

용남

... 의주야... 옥상문 밖에선 열 수 있는 거지?

의주

뭐?...

용남

(손에 쥔 금속 트로피를 꼭 잡으며)

밖에서 열 수 있는 거 확실하지?

의주

... 어... 손에 그건 뭐야...?

용남

... 뒤로 좀 가봐...

의주를 뒤로 밀고 가더니 갑자기 뒤로 돌아 달려가는 용남,
손에 든 금속 트로피를 통유리 벽을 향해 강하게 던진다. 쿵! 깨지지 않는 통 유리벽.
다시 진열대에 있던 금속 트로피와 조각상들을 유리벽을 향해 연이어 던지는 용남.
몇 번의 시도에 썩!! 소리와 통유리 벽이 깨지자 용남이 고개를 내밀어 위쪽을 바라본다.

의주

(용남에게 뛰어가서)
오빠 미쳤어!? 지금 뭐하는 거야!!
(대꾸도 없이 밖만 바라보는 용남을 당기며)
뭐하는 거냐고!!

용남

의주야! 여기 로프나... 아님 비슷한 거라도 좀 찾아봐 줘... 어?!

용남이 보던 곳을 바라보는 의주, 몇 미터 떨어진 옆 건물 옥상이 비슷한 높이에 위치해 있다.

의주

(용남의 의도를 알아채고)
... 오빠... 지금 무슨 생각하는 거야?

의주 뒤편으로 놀라서 달려오는 사촌들과 구 점장의 모습이 보인다.

34. 구름정원, 옥상 문 앞 - 실내/밤

옥상 문손잡이를 계속 흔들어대다가 아무리 해도 열리지 않자 화를 내는,

셋째 숙부

에이씨!! ... 그렇게 가만 보고만 있을 거요?!

둘째 숙부

가만 안 있으면... 나보고 뭐 어쩌라고 지금!!

셋째 숙부

형님 친구들 중에 높은 사람 좀 있을 거 아뇨! 가만있지 말고 전화 좀 돌려 봐요!

둘째 숙부

없어 임마! 다 퇴직해서 지금 집에서 애나 보지...

셋째 숙부

어휴... 씨 빠지게 서울대 보내놔더니 득 보는 것도 없고 연장....

둘째 숙부

연장? 이 자식아! 네가 나 학교 다닐 때 동전 한 푼이라도 대준 적 있어?!

장수

(셋째를 보며)

야! 막내야! 너 후배 중에 119 있다고 그러지 않았냐!? 어?!

셋째 숙부

어?! 있어요!! 있어!

(생각난 듯 급하게 핸드폰을 꺼내 전화를 걸며)

서울대? 난 해병대다! 여보세요!! 나 292기 이갑수야!!

셋째 숙부 후배 (소리)

아이구! 필승! 선배님 이 시간에 웬일이십니까!

셋째 숙부

그래 필승! 자네 아직도 119에서 일하지?! 그지 맞지?! 여기 구조대 좀 빨리 보내줘! 내가 지금 가스 사고 난 동네에 있는데!!

셋째 숙부 후배 (소리)

아, 선배님 농담도 허허... 저는 그런 119가 아니고...

인서트. '부동산 119' 간판의 가게. 창 너머로 통화 중인 셋째 숙부 후배의 모습.

장수

뭐래? 어?! 올 수 있대?! 어!?

현욱

도련님!! 제발 빨리 좀 와달라고 하세요!!

멍한 표정으로 가족들의 눈치를 살피며 식은땀을 흘리는 셋째 삼촌.

이 때 큰 소릴 지르며 뛰어 올라오는,

용민

큰 아빠! 큰 엄마아! 용남 형 미쳤나 봐요! 용남 형이!

35. 구름정원, 측면 공간 - 실내,외/밤

화재발생시 건물 아래로 대피 할 수 있는 완강기 박스 세 개가 바닥에 놓여있다.

용남이 살펴보면, 박스 당 도르래에 말린 50미터 길이의 로프, 벨트 등이 들어있다.

완강기 줄을 절단기로 몇 번 끊어 어깨에 둘둘 말고는 허리에 매듭을 묶기 시작하는 용남.

의주

오빠... 너무 위험해... 계획도 없이 이렇게...

용남

(의주를 뒤로 데려가며)

의주야... 뒤로 가있어...

지금까지와 다른 용남의 눈빛에 순간 할 말을 잃는 의주.

구 점장

(의주를 벽으로 끌고 가며)

자기 선배 미쳤어!? 지금 가게 다 부숴놓고 뭐하자는 거야?

(의주가 대답이 없자 채차 물으며)

이거 지금 무슨 상황이냐고! 내 말 안 들려?! 자기 지금!

의주

(구 점장을 바라보며)

점장님...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기라고 좀 부르지 마세요... 네?

당황한 표정으로 의주를 바라보는 구 점장. 뒤에서 장수와 삼촌들이 황급히 뛰어 들어온다.

장수

(로프 끝을 벽기둥에 매듭짓고 있는 용남을 바라보며)

얌마!... 너 지금 뭐하는 거야! 어?!

(용남을 향해 다가가며)

뭐하는 거냐고!? 엉?!

벽에 묶은 로프의 나머지 끝을 자신의 허리에 묶고는 사촌동생 용수의 운동화를 바라보는,

용남

(재킷을 벗으며)

용수 너 운동화 벗어! 빨리!!

자신의 구두와 용수의 운동화를 바꿔 신는 용남, 신발 끈을 빠르게 매고 일어선다.

장수

(용남의 어깨를 붙잡으며)

뭐하는 건지 말 좀 해 이놈아!!

(용남의 눈빛을 보며 뭔가 느끼고)

너... 하지 마... 뭐든 하지 말라고! 이놈아! 얌마!!

이 때, 뒤에서 나타나는 현옥과 용남의 조카 지호.

현옥
용남아! 용남이가 뭐! 뭘 어찌는데!!

다들 시선이 현옥에게 향한 순간! 장수를 뿌리치며 전력질주 하는,

용남
다 비켜!

장수
야 임마!

힘차게 도움닫기를 하더니 뚫린 공간을 넘어 공중으로 부웅!! 날아오르는 용남.

현옥
용남아악!

날아간 용남이 옆 건물 옥상난간에 두 발을 간신히 착지하는 가 싶더니 이내 뒤로 넘어간다.

용남
어어어어! 우아악!!

놀라서 소릴 지르는 용남의 가족들과 의주.
뒤로 넘어가며 떨어지던 용남, 퍽! 난간 끝을 한 손으로 붙잡고 간신히 매달린다.

현옥
용남아아! 재 좀 어떻게 해봐! 빨리!! 뗏들 하고 있어!

장수
(로프를 붙잡으며)
다들 붙어서 당겨! 빨리!

가족들이 달려들어 로프를 잡아당기자 용남의 허리가 당겨지며 공중으로 붕 뜬다.

용남
하지 마! 크흑! 당기지 말라고!!

의주
당기지 마세요!! 이게 더 위험해요!!

가족들이 손을 놓자 몸이 벽에 부딪히는 용남. 한 손으로 난간에 매달린 채 부들부들 떨다가 이내 나머지 손을 올려 난간을 붙잡는다. 떨리는 표정으로 용남을 바라보는 의주와 지호.

의주

... 제발... 제발....

지호

... 올라가... 올라가라고... 삼촌 올라가!! 삼촌!!!

용남

우아아아아아!!

두 팔로 몸을 쭈욱 당기며 한쪽 다리를 난간에 걸치더니 옥상으로 힘겹게 올라가는 용남.

가족들

와아! 올라갔다! 올라갔어!!

긴장이 풀린 현옥과 장수가 바닥으로 주저앉는다.

허리에 묶은 줄을 풀어 옥상 난간에 매듭짓는 용남, 두 건물 사이가 연결된다.

용남을 보고 내면의 무언가가 꿈틀대는 듯 표정이 변하는 의주, 갑자기 어딘가로 달려간다.

구름정원, 직원 휴게실.

의주가 사물함을 열더니 가방 끝에 달려 있던 뭔가를 빠르게 떼어내 손에 들곤 밖으로 나간다.

구름정원 옆 건물 옥상.

용남이 구석에 있던 1.5미터 길이의 쇠파이프를 뽑더니 옥상 출구 건물 위로 던져놓는다.

구름정원, 카운터.

달려 나오던 의주가 옆에 세워진 철판을 바라보다가 카운터 서랍을 열어 뭔가 찾기 시작한다.

구름정원 옆 건물 옥상.

구름정원 건물 외벽을 보며 허리에 새로운 매듭을 묶기 시작하는 용남.

의주

(달려와 가족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와서)

잠시 만요!! ... 오빠!!

의주가 손에 들고 있는 뭔가를 용남에게 던진다.

용남이 받아들고 펴보면 손수건에 싸여있는 낡은 카라비너 하나와 분필 박스다.

카라비너를 잠시 바라보던 용남, 의주에게 눈길을 한 번 주고는 이내 준비에 들어간다.

분필을 손수건에 말아 발로 짓이겨 가루로 만들더니 허리춤에 묶는 용남.

용남

(카라비너를 허리에 철컥 끼우곤 가족과 의주를 바라보며)

... 다들 올라가서 옥상 문 앞에서 기다려!!

용남의 말에 놀라 웅성거리는 가족들.

옆에 있는 4미터 높이의 옥상 출구 건물 쪽으로 빠르게 뛰어가는 용남,
손에 분필가루를 잔뜩 묻히곤 맨 손으로 벽을 짚짚 타고 올라가기 시작한다.

둘째 숙부

... 저 놈 저거... 뭘 저렇게 잘 올라가...

빠르게 출구 건물 위로 올라와 구름정원 건물 옥상을 바라보는 용남, 둘러매고 있던 로프의 한쪽 끝을 어딘가에 단단히 묶고 나머지 끝을 허리에 찬 카라비너와 연결한다.

아까 위로 던져놓은 쇠파이프를 들어 꺾 쥐어 잡는 용남,

맞은편 건물을 향해 전력질주 하더니 공중으로 힘차게 도약한다.

잡고 있던 쇠파이프를 머리 위로 들어 양손으로 잡더니 어딘가를 향해 힘차게 내리꽂는 용남!

터덕! 쇠파이프의 양끝이 아슬아슬하게 벽면 틈 사이로 끼워지며 벽면에 매달리는 용남.

용남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소릴 지르는,

장수, 현옥

어떻게 된 거야!! 왜 안 보여!! 용남아!!

의주

(뺨 뚫린 복도 끝에 혼자 붙어서 용남을 바라보며)

지금 이쪽 건물 벽에 매달려 있어요...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철봉을 잡은 자세로 공중에 매달려 있는 용남, 이내 반동을 주며 몸을 힘차게 위로 튕겨 올린다.

터덕! 순간적인 반동으로 현재 틈의 쇠파이프를 빼면서 윗부분의 틈에 새로 끼우는 용남.

용민이가 뚫린 창가로 기어가서 돌아눕는다. 뒤에서 용민의 발을 잡아주는 용수.

용민

(용남의 모습을 보고 놀라서)

헉... 형!!

장수

뭐하고 있어!! 용남이가 어찌고 있는 거야!!

용민

용남형이!... 그게... 설명하기가!!

순간, 경망스럽게 울리는 용민의 핸드폰 벨소리. 놀라서 핸드폰을 꺼내보면 발신자가 용해다.

쇠파이프를 이용해 갈 수 있는 곳까지 올라가는 용남, 벽면으로 이동해 클라이밍 동작으로 빠르게 이동하기 시작한다. 아래에서 핸드폰으로 용남의 모습을 찍기 시작하는 용민.

용민과 영상통화중인 핸드폰 화면을 어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용해.

벽에 붙어있는 용남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라는 가족들.

아슬아슬하게 벽면을 오르던 용남, 어느 순간 마땅히 잡고 오를 만한 게 없는 구간을 맞이한다.
조금 떨어진 벽면 틈을 잡으려 손을 뻗어 보지만 로프가 팽팽하게 당겨져 잡을 수가 없다.

용남

제발... 딴 거 안 바랄 테니까 딱 이번 한번만 도와주세요. 제발...

뭔가 결심한 표정의 용남, 카라비너에 걸어놓았던 로프 고리를 빼서 아래로 던져버린다.
로프가 힘없이 아래로 떨어지자 놀라서 제일 먼저 소리 지르는,

의주

이용남! 야이 미친 새끼야아!!

놀란 표정으로 의주를 바라보는 가족들과 어지러운 듯 비틀거리는 현옥을 옆에서 부축하는 장수.

용남

(있는 힘껏 몸을 던지며)

후... 후... 후... 으이차!!

건물 모서리 부분으로 척! 달라붙는 용남, 위를 바라보면 옥상 모서리 끝부분에 거대한 크기의
사자머리 조각상에 설치되어 있다. 힘차게 위를 향해 오르는 용남, 사자머리 근처까지 도달한다.
사자머리를 향해 점프하려 몸에 반동을 주는 용남.
가족들 모두 말도 못한 채 용남의 움직임에 맞추어 함께 기를 쓴다.

용남

우아아아앗!!

힘껏 점프해 사자의 양쪽 아랫니를 잡는데 성공하는 용남,
갑자기 사자의 한쪽 아랫니가 툭! 부러진다.
잠시 버둥거리다 다시 손을 올려 사자를 붙잡는 용남, 몸을 쪽 끌어올려 옥상 안쪽으로 넘어간다.
이를 보고 환호성을 지르는,

가족들

와아! 올라갔다! 올라갔어!!

의주와 지호가 기뻐하며 서로를 끌어안는다.

36. 구름정원, 옥상 - 실외/밤

힘이 빠져서 간신히 옥상 난간을 넘어오는 용남,
바닥에 털썩 쓰러져 잠시 숨을 헐떡이다가 벌떡 일어나 옥상 문 앞으로 달려간다.
옥상 문손잡이를 붙잡고 힘차게 돌리는 용남.

철컹! 옥상 문이 천천히 열리고 하나 둘 보이기 시작하는 가족들의 얼굴.

용남
(울먹이고 있는 가족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 나와... 빨리...

옥상으로 우르르 몰려나오는 사람들. 들것에 실려 나오던 정현에게 다가가는,

용남
누나! 좀만 참아! 내가 금방 병원에 데려다 줄게!!

장수
암마...!

용남에게 다가오는 장수와 현욱. 근육 경련이 일어나 덜덜 떨리는 용남의 손을 잡는,

현욱
... 으흑... 괜찮아?! 너 손을 왜 이렇게 떨어... 흑흑...

용남
괜찮아... 나 진짜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아!

장수
암마! 네가 뭐라고 나서긴 나서!! 너 다신 이런 짓 하기만 해봐!!
그 땐 내가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이눔아...

용남
알았어... 알았으니까... 누나한테 가있어...

의주와 시선이 마주치는 용남, 서로를 바라보는 두 사람 사이에 잠시 묘한 감정이 흐른다.
그 때, 대형수송헬기가 불을 밝히며 옥상 상공을 지나간다.

사람들
(헬기를 향해 손을 흔들며)
와아!! 여기요!! 여기!! 사람 살려!!!

힘껏 소리쳐 보지만 그대로 멀어져가는 헬기의 뒷모습을 실망한 표정으로 바라보는 사람들.

용수
... 왜 그냥 가는 거야?!... 우리가 안 보이나?!

의주

(핸드폰 라이트를 켜고 흔들기 시작하는 용혜를 보고)
저기!! 다들 이리로 모여 보세요!!

점프.

헐떡이는 정현을 돌보고 있는 현옥과 셋째누나, 돌아가기 엄마.
그 뒤로 옥상 가운데 모여 있는 사람들과 그 앞에 선 의주의 모습이 보인다.

의주

(핸드폰 라이트를 손으로 가렸다 뺐다 하며)
따따따! 따! 따! 따! 따따따! 이게 SOS 구조신호예요!! 아셨죠?!
해볼게요! 따따따! 따! 따! 따! 따따따! 박자 맞추세요!!!

사람들

따따따! 따! 따! 따!!! 따따따! ... 따따따! 따! 따! 따! 따따따!

사람들이 의주의 신호에 맞추어 핸드폰 라이트를 하늘로 향한 채 점멸시키기 시작한다.

의주

(단호하게 큰 목소리로)
더 크게!! 소리 크게 내세요!

의주의 지시에 따라 열심히 소릴 질러대는 옥상 위 사람들.
화면 점점 넓어지면서 옥상 위에 H자 배열로 서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난다.

37. 앤서화학 근처 도로 - 실외/밤

가스 속을 달리던 탐지 수거 팀이 뭔가 발견하고 잠시 서서 바라본다.
차에 발힌 소화전에서 공중으로 뿌려지는 물로 인해 주변의 가스가 모두 사라진 모습.

38. 앤서화학 근처 상공 - 실외/밤

소방헬기 내부 시점으로 보이는 하단이 가스에 휩싸인 앤서화학 빌딩의 모습.
비행중인 소방헬기 옆을 대형구조 헬기가 스쳐 지나간다.

39. 대형구조헬기 - 실내/밤

헬기에 타고 이동 중인 한 아이가 창밖에 뭔가를 바라보며 소리 지른다.

아이

엄마! 저기! 기린! 기린...

혼란스런 내부 상황과 엔진소음에 겹쳐 아무런 관심을 끌지 못하는 아이의 외침.
공중의 시점, 구름정원 건물 옥상에 소문자 h자 모양으로 배열된 불빛이 점멸하고 있다.

40. 구름정원, 옥상 - 실외/밤

대열이 좀 흐트러진 채 멀리 지나가는 대형구조헬기의 불빛을 향해 소리 지르는,

사람들

따따따! 따! 따! 따!! 따따따! 사람 살려!! 따따따! 따!...

대형구조헬기가 그대로 지나가자 망연자실한 표정의 사람들.

의주

멈추지 말고 계속 하세요!! 따따따!! 따!

둘째 숙부

에이씨! 이게 몇 번째야! 이거 안 돼!

용남

작은 아버지! 계속 하세요!! 멈추지 마요! 다들 계속 하라고!!

둘째 숙부

(대열을 이탈하며)

이러다 빠페리만 다 닳겠다! 다들 119에 전화나 넣어 빨리!! 용민
이 이 놈 어디 갔어...? 용민아!!

셋째 숙부

용수 이 놈도 왜 안보여! 야! 네 오빠 어디 갔어!?

용혜

... 그 새끼... 내가 말렸는데... 아까 용민 오빠랑 같이 아래로 내려갔어... 흐흑... 벌써 죽었을지도 몰라... 흐흑...

이 때, 쿵!! 소리와 함께 옥상바닥에 이동식 스피커앰프를 내려놓는 용민과 용수.

셋째 숙부

야... 너희들... 그거 뭐야?!

용민이 스피커 전원을 콘센트에 연결하자 용수는 앰프의 전원을 켜고 마이크를 입에 댄다.

용수

(고층빌딩 쪽에 몰려있는 대형헬기들을 바라보며)

후읍... 사람 살려! 사람 살려라! 따따따! 따! 따! 따! 따따따!!!!

갑작스러운 용수의 행동에 놀라는 사람들.

용민

(달려와서 용수가 잡은 마이크에 함께 입을 대고)

뭐해요! 다들 소리 지르라고! 따따따! 따! 따! 따! 따따따!

용민과 용수의 처절한 모습에 다시 열심히 소리 지르며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는,

사람들

따따따! 따! 따! 따!!!! 따따따! 사람 살려!!

그 때 사람들 뒤편에 비행중인 헬기의 불빛을 발견하는,

지호

저기 뒤에 헬리콥터다!! 저기!!

사람들

(단체로 몸을 반대로 돌리며)

따따따!! 따! 따! 따!! 따따따! 사람 살려!!!

의주

(용남에게 달려가서)

계속 하고 있어!! 금방 올게!

용남

(옥상 문을 향해 달려가는 의주를 향해)

너 또 어디 가는 데! 야! 의주야!

41. 구름정원, 중앙홀 - 실내/밤

카운터 쪽으로 달려오는 의주, 전기 단자함을 열고 스위치를 올렸다 내렸다 반복하자 건물 벽에 붙어있는 구름 정원의 대형 간판이 점멸하기 시작한다.

42. 구름정원, 옥상 - 실외/밤

옥상 위 사람들 모두 헬기를 향해 필사적으로 소리치며 핸드폰 라이트를 점멸시키고 있다.

용민, 용수

사람 살려! 여기요! 제발 좀 살려 주세요요!! 여기 좀 보라고!

사람들

사람 살려! 따따따! 따! 따! 따! 따따따... 흐흑...

계속된 사람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헬기는 고층빌딩 방향으로 멀어져 간다.
실망과 포기한 표정으로 다들 행동을 멈춘 그 순간, 갑자기 용혜가 마이크를 잡아챈다.

용혜

(난간 구석 쪽으로 뛰어 올라가며)

계속 해요! 포기 하지 말라고! 계속 하라고!!! 사람 살려.... 흑....

제발 여기 좀 보라고... 좀 도와달라고... 사람 살려... 흑... 에이씨!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살려달라고! 제발!!!

사!!~~ 람!!~~ 살!!~~려어!!!↗ 어~~~~↗↗어어~~~~↗↗↗

끼아아아아!!!↗↗↗

엄청난 성량으로 돌고래 초음파 수준의 4단 고음을 질러버리는 용혜,
앰프가 터지며 연기가 피어나자, 가족들이 모두 놀란 표정으로 용혜를 바라본다.
숨을 몰아쉬는 용혜, 멀어져 가던 헬기가 급선회하더니 방향을 바꾸며 구름정원 쪽으로 다가온다.

사람들

... 온다...!! 이쪽으로 온다!! 와아!! 우릴 봤어!! 사람 살려!!!

헬기 바스켓의 시점, 옥상 위 점멸하고 있는 구름정원의 간판이 보인다.

43. CBA 방송국, 부조정실 - 실내/밤

보도국장

CCTV영상 아직 확보 못했어!? 빨리 빨리 좀 움직여!!

부하직원

국장님! SNB 좀 보세요!

수많은 모니터 중 눈에 띄는 SNB 방송화면, 하단에 보이는 자막.

'탱크로리 운전자 신원 단독입수! 테러사건으로 전환!'

44. 탈출 몽타주 - 실외/밤

SNB 방송국, 스튜디오.

김 기자

탱크로리 운전자는 53세 양모 씨로 사고 원점지인 앤서화학 서대
완 회장과는 대학 동기이자 친구 사이입니다. 두 사람은 지난
2006년 'Y&SEO 케미스트리' 라는 벤처 연구소를 공동 창업했었
는데요...

구름정원, 옥상.

상공에 자릴 잡은 구조헬기, 구조 바스켓이 옥상을 향해 서서히 내려온다.

김 기자 (소리)

어떤 이유에선지 두 사람은 창업 후 3년 만에 갈라서게 됐습니
다. 이후 서회장은 앤서화학을 창업해 미세먼지제거 솔루션을 개
발하는 등 친환경 기업으로 비약적인 성장을 이뤄낸 반면, 양씨
의 행적이나 정보는 아직까지 밝혀진 게 없는 상황입니다.

구조 바스켓이 옥상에 안착하자, 재민과 동료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온다.

들것에 실은 정현을 선두로 사람들이 모여 있다.

앤서화학, 내부 도로.

가스 속을 달려온 탐지 수거 팀이 거대한 탱크로리를 발견하고 놀란 눈빛으로 변한다.
뿜어지던 가스는 용량이 다해서 이미 멈춘 상황이다.

과거 지인 통화내용 (음성변조)

서회장이나 양(뽀!뽀!) 다 확실히 천재적이었죠... 둘이 경쟁하는
분위기도 좀 있었는데... 양(뽀!뽀!) 그 사람 좀 회한했어요... 서
회장이 양(뽀!뽀!)가 두렵다고... 그런 말을 한 적도 있었는데... 압
튼 둘이 갈라서지 않았으면 지금의 앤서 화학은 존재하지 못했을
거라는 게...

폐 공장.

일호의 제조실로 들이닥치는 경찰들, 과학수사관들.

벽면 곳곳에 있는 앤서화학 관련 기사 자료들, 화학 실험기구들이 보인다.

초반에 등장했던 투명박스, 가득 차 있던 가스가 사라지고 바닥에 보이는 생쥐의 사체.

CCTV.

도로 곳곳 CCTV 화면에 찍힌 운행하는 탱크로리와 가스 분출의 순간.

앵커 (소리)

수 년 간 자취를 감추었던 양씨가 알 수 없는 유독가스를 탱크로리에 가득 싣고 앤서화학 앞에서 터트렸다! 왜일까요!? 그것도 하필 앤서화학 신사옥 개장식 전날 말이죠! 이런 엄청난 일을 벌인 양씨는 지금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앤서화학, 내부 도로.

탱크로리 앞바퀴에 기대져있는 일호의 시체를 발견하고 바라보는 탐수팀.

구름정원, 옥상.

정현을 구조 바스켓에 태운 뒤 사람들을 순차적으로 집어넣는 구조대원들의 모습.

구름정원 건물, 비상계단.

옥상 쪽으로 뛰어가는 의주, 급하게 계단을 오르다가 넘어지며 핸드폰을 손에서 놓친다.
난간 사이 아래 가스 속으로 떨어져 사라지는 의주의 핸드폰.

구름정원, 옥상.

옥상 출구를 바라보고 있는 용남을 강제로 끌고 가 바스켓에 태우는 현옥.
사람들에 밀려 탑승하지 못한 돌잔치 부부가 불안에 떨고 있다.

아기 엄마

오빠 어떻게 좀 해봐! 우리도 타야지!!

아기 아빠

저기! 저희도 탈게요! 좀만 자리 좀 내주세요!!

사람들

좀 들어가 봐!! 줘야! 아악!! 밀지 좀 마!!

바스켓에 디지털로 표시된 탑승 인원 중량이 한계에 다다르자 걱정스런 표정으로 변하는 재민.

의주

(출구 쪽에서 달려와서)

이리 오세요!!

(돌잔치 가족을 바스켓으로 밀기 시작하며)

다들 최대한 서로 밀착시켜 주세요! 빨리요! 학생 좀 들어가!!

바스켓에서 내려 의주를 돕기 시작하는,

용남

좀만 더 들어가 봐요! 다들 좀 붙어 보라고!!

(돌잔치 가족이 탑승하자 의주의 손목을 잡아끌고)
이제 너도 타!! 빨리!

재민
(위험을 알리는 바스켓의 중량표시를 보고 문을 닫으며)
정지!! 안돼요! 더는 못 탑니다!!

장수, 현욱
(철망 사이로 용남의 팔을 붙잡고)
문 열어!! 용남아! 빨리 타! 그냥 빨리 타라고!

재민
안된다고요!! 중량 초과 되면 케이블 끊어질 수도 있다고요!!

용남
(의주의 손목을 잡아끌며)
그럼... 한 명만요!! 제발 한 명만 더 태워 주세요!!

재민
그럼 한 명을 내리게 하던 가요!! 금방 다른 헬기 올 겁니다!

장수
내가 내릴 게요 내가! 용남이 너 이리 와! 네가 먼저 가!!

용남
(장수를 붙잡고 못 나오게 막으며)
아빠 그냥 있어!! 나오지 말라고!!

의주의 손목을 꼭 붙잡은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용남.
바스켓 구석에서 자릴 잡은 채 시선을 피하고 있는 구 점장을 발견하는 의주,
이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용남에게서 손을 빼내며 바스켓에서 몇 걸음 물러난다.

용남
(떨리는 눈빛으로 의주를 바라보다가)
... 출발하세요... 빨리요!! 빨리 가세요!!

재민
탑승완료!! 출발!! 다들 꼭 잡으세요!

바스켓이 위로 들린다. 철망 사이로 잡고 있는 용남의 손을 꼭 잡고 놓지 않는 장수와 현욱.

장수, 현욱

멈춰! 스톱!! 아직 우리 애가 안 왔어요! 용남아! 용남아!!

바스켓이 상승하며 잡고 있던 용남의 손을 놓치는 장수와 현옥.

용남

걱정하지 마!! 다른 헬기 금방 온댔어!! 먼저 가 있어! 내가 금방 따라 갈게!

헬기가 날아가며 용남이를 부르는 애타는 가족들의 소리도 점점 멀어져 간다.

45. CBA 방송국 부조정실 - 실내/밤

SNB 앵커

양씨와 관련해선 새로운 소식 들어오면 계속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 현재 구조 상황은 어떻습니까?

SNB 방송국 화면을 보던 보도국장과 직원들이 모두 한숨을 내쉬었다.

부하직원

와... 완전 독점이네... 어떻게 다 알아낸 거야...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 어디론가 전화를 걸며 급하게 밖으로 나가는 보도국장.

46. 기백의 방 - 실내/밤

자다가 깨는 용남의 선배 기백, 옆에 있던 핸드폰을 들고 바라본다.

자는 사이 벌어진 사고에 놀라 뉴스 기사를 클릭해보는 기백.

핸드폰 화면의 관련기사 제목 중 '주유소 불길 아직 안 잡혀!' 가 눈에 띈다.

47. 구름정원, 옥상 - 실외/밤

옥상에 둘만 남은 용남과 의주, 저 멀리 주유소에서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

용남

(몸을 돌리고 있는 의주의 등 뒤로)

... 의주야... 미안하다... 우리 가족 때문에 네가...

의주

... 무슨 소리야... 손님들 먼저 보내는 게 당연하지... 나 구름정원
부점장이야...

용남

(감동한 표정으로)

... 의주야... 너 진짜...

용남이 보기엔 당당한 의주의 뒷모습. 사실 의주는 눈물을 짝짝 흘리며 우는 걸 감추고 있다.
순간 갑자기 크게 들리는 헬기의 엔진 소리! 두 사람을 향해 구조헬기가 다가온다.
크게 소릴 지르며 힘차게 손을 흔드는,

용남, 의주

와아!! 여기요!! 여기!! 살려주세요!!

서로의 손을 붙잡고 신나서 소리 지르는 두 사람.

용남

됐다!! 됐어!! ... 너 왜 이렇게 울어...?

의주

으흑... 좋아서... 너무 좋아서... 엉엉...

용남

흐흑... 나도... 의주야!! 나 여기서 나가면!! 나가기만 하면!

(멀리 보이는 고층빌딩들을 가리키며)

저런데! 저렇게 높은 건물로 된 회사에만 원서 낼 거야!! 무조건

충수만 보고!! 저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벌써 구조 됐을 거 아냐!

의주

(울먹이며)

그러게 저런 데서 일하지 뭐한다고 아직도 놀아... 으흐흑...

(할 말을 잃고 당황한 표정의 용남을 바라보며)

아까 미회랑 통화하다가 들었어, 왜 그런 거짓말을 해...

용남

... 그게... 내가... 원래는...

의주

(헬기를 바라보며)

저거... 왜 저래...? 왜 안 오고...

구름정원 건물로 다가오던 구조헬기가 대로변 상공에 멈춘 채 잠시 떠 있다.

갑자기 방향을 돌려 구름정원 건물과 대로를 사이에 둔 맞은편 건물로 향하는 구조헬기.

용남, 의주

(표정이 굳어지며)

여기라고요... 여기요!!! ... 거기가 아니라 여기라니까!!!

구조헬기가 맞은편 건물 옥상에 있던 수십 명의 사람들을 먼저 구조하기 시작한다.
당황스런 표정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는 용남과 의주.

용남

(다급하게 주변을 살피다 뭔가 생각난 표정으로)

... 의주야... 우리 내려가서 뭐 좀 가져오자...

의주

뭐?!

(옥상 문을 향해 달리기 시작하는 용남을 쫓아가며)

오빠!!

48. 구름정원 - 실내/밤

비상계단 문을 열고 내부로 빠르게 뛰어 들어오는 용남과 의주.

의주

그걸 얻다 쓰려고!!

용남

(복도 쪽으로 달려가며)

대비는 해야지!! 일단 빨리 찾거나 해!!

빠르게 달려가 복도를 꺾어 사라지는 용남의 뒷모습.

의주

야 이용남!! ... 호흑... 도대체 뭘 어찌겠다는 거야... 진짜...

카운터 쪽으로 달려가 전화기를 들어 119 버튼을 누르는 의주.

측면 공간.

용남이 옆 건물로 점프 했던 복도, 바닥에 있던 완강기 로프와 절단기 등을 챙기는 용남.

라일락 룸.

장수의 백 팩을 들어 주변에 있던 생수, 파티용 불꽃스틱 등을 죄다 가방에 쓸어 담은 용남.

카운터.

119와 연결이 되지 않자 전화를 끊는 의주, 떨리는 표정으로 집 전화번호를 누른다.

통화 연결 음이 들리기 시작하자 서서히 울먹이기 시작하는 의주.

순간, 갑자기 뒤에서 달려온 용남이 의주 손에 있던 수화기를 뺏어 던지곤 손을 잡아끈다.

용남

너 지금 뭐해!! 내가 말한 거 찾았어?! 우리 시간 없어!!

(의주의 치마를 바라보며)

일단 너... 너!! 이거 빨리 벗어!! 치마부터 빨리 벗고!!

의주

(용남을 밀치며)

뭐하는 거야!!

(표정이 일그러지며)

흐흑... 내가 사람이나?! 이런 짐승 같은 새끼야!!

용남

아니 뭐래!! 바지 같은 걸로 갈아입으라고!! 빨리!!

49. 병원, 응급실 - 실내/밤

산소마스크를 쓰고 치료 중인 정현, 다소 호흡이 안정 되는 듯 보인다.

첫째 매형

정현아! 좀 괜찮아?! 숨 쉬는 게 좀 나아?! 어?

현우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는 정현을 바라보곤 손을 붙잡으며)

호호호... 됐다... 흑... 됐어... 으흑흑....

(정현이 손바닥에 손가락으로 뭔가를 쓰자)

... 용남이? 흑... 용남이 오고 있어... 을 거야 금방 온다 그랬어...

옆에서 이를 바라보던 장수가 떨리는 표정을 애써 꺾 참는다.

50. 자격증 학원 옥상 - 실외/밤

구조 바스켓에 서로 타려고 경쟁하는 십 수 명의 젊은이들.

정원이 찬 구조 바스켓이 떠오르지만 몇몇이 끝까지 매달렸다 옥상 바닥으로 떨어진다.

아비규환의 상황 속, 유독 낮이 나간 표정으로 서 있는 한 젊은이가 눈에 띈다.
젊은이의 뒤쪽, 대로 건너편으로 옥상까지 가스에 휩싸인 한 건물의 형체가 보인다.
옥상 쪽에 순간적으로 바람이 불고, 가스가 걷어지자 가려져 있던 구름정원의 간판이 드러난다.

51. 병원, 로비 - 실내/밤

TV 앞에서 속보 화면을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 속에 섞여있는 용남의 가족들.
용남의 누나들이 울면서 용남에게 전화를 걸고 있다.

둘째 누나

다시 걸어 봐!! 다시!! 빨리!!

셋째 누나

받아라 제발... 전화 좀 받아 이 새끼야! 흑흑... 용남아...

52. 길거리 - 실외/밤

가스로 가득 찬 길거리, 바닥 여기저기 떨어진 핸드폰들이 벨소리를 울려대며 변쩍거린다.
멀리서 작게 들려오는 누군가의 경망스런 핸드폰 벨소리, 소리가 점점 커지며 가까이 다가온다.
가스를 뚫고 튀어나오는 용남과 의주! 방독면을 착용한 채 전력질주 중이다.
대형 쓰레기봉지로 몸을 싸매고 틈새를 테이프로 단단히 붙여놓은 모습,
손엔 고무장갑까지 착용해서 모습은 이상하지만 전체적으로 보호가 된다는 느낌이다.
거리에 깔린 차와 시체들을 피하며 전력질주 하는 두 사람.

지하철 암길 역 근처.

2번 출구 기둥으로 달려오는 두 사람, 용남은 기둥에 붙은 주변지도를 보며 위치를 살핀다.
의주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출구난간에 기대다가 뭔가를 밟고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난다.
발 옆으로 쓰러져 있는 남녀의 시체가 보인다.
덜덜 떨리는 의주의 눈빛, 자신이 밟은 탓에 벗겨진 여자의 하이힐을 바라본다.
천천히 무릎을 꿇고 여자의 하이힐을 조심스럽게 다시 신겨주는 의주.
팔에 붙여놓은 핸드폰의 스톱워치를 바라보는 용남, 벌써 8분이 지났다.
놀란 눈빛으로 의주에게 달려가 손을 붙잡곤 재빨리 근처 빌딩으로 뛰어 들어가는 용남.

53. 건물 A - 실내,외/밤

끼이익... 옥상 문이 열리고, 용남과 의주의 상반신이 보인다. 놀란 눈빛으로 변하는 두 사람.
화면 넓어지면, 옥상은 이미 두 사람의 무릎 높이까지 가스가 올라 차 있다.
가스가 옥상 문을 통해 안쪽 계단으로 퍼지며 내려간다.

옥상으로 나오는 두 사람, 주변으로 마땅히 대피할 곳이 보이지 않는다.
 핸드폰 화면의 스톱워치를 바라보는 용남, 시간은 이미 십 분을 넘어갔다.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새 정화통을 꺼내곤 의주와 정화통을 번갈아보며 갈등하는 용남.
 이내 어쩔 수 없다는 눈빛으로 새 정화통의 비닐을 뜯어 자신의 현 정화통과 빠르게 교체한다.
 의주를 바라보며 급한 수신호 동작과 함께 뭐라고 외치는 용남, 방독면 때문에 소통이 어렵다.
 어쩔 수 없단 듯 갑자기 옥상 문을 향해 도망치듯 달려가는 용남, 놀란 의주가 용남을 쫓아간다.
 황급히 문 안쪽 계단으로 내려가더니 가스 속으로 사라지는 용남.

의주

(옥상 문에 붙어서 소리치며)

야!! 이용남!! 어디 가는 거야!! 야!!

54. 병원, 운동장 - 실외/밤

병원 앞 운동장에 설치된 제독텐트를 비롯한 임시 시설과 장비, 수많은 사람들.
 소방헬기가 운동장 임시착륙장에 구조 바스켓을 착륙시킨다.
 구조 바스켓에서 내린 사람들의 상태를 선별해서 이동시키는 구조대원들의 긴박한 모습들.
 통제선 바깥에 몰려 있는 사람들 속에 고개를 돌려대며 용남을 찾고 있는 장수와 현옥의 모습.

장수, 현옥

(구조대원을 붙잡고 울먹이며)

선생님! 제발 우리 아들 좀 구해주세요!! 제발!! 제발 우리 용남
 이 좀 데려와 주세요!! 으흑흑흑....

55. 몽타주 - 실내,외/밤

지하철 압길 역.

내부에 가득 찬 가스를 헤치고 용남이 모습을 드러낸다. 벽을 더듬거리며 길을 찾는 용남.

건물 A, 옥상.

옥상을 뛰어다니며 도망칠 곳을 찾는 의주. 가스가 점점 위로 올라온다.

지하철 압길 역.

방향을 찾을 수 없어 우왕좌왕하며 시간을 낭비하는 용남, 뭔가를 밟고 자리에 멈춰 선다.
 발밑을 바라보면 노란색 블록으로 만들어진 맹인용 안내 라인이 보인다.

지하철 압길 역, 플랫폼.

안내 라인을 밟으며 플랫폼 중간에 설치된 방독 구호함에 도착하는 용남.
 사람들이 헤집어 놓은 듯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방독면과 정화통들.

대부분 비닐이 뜯겨져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 용남의 눈빛이 당황해서 흔들린다.
주변을 뒤져 다행히 온전한 정화통 세 개를 챙기는 용남.
핸드폰의 스톱워치를 확인해 보면 7분이 넘어갔다.

건물 A, 옥상.

옥상 가운데에 선 채 입구 건물을 바라보고 있는 의주, 가스가 어깨높이로 올라와 있다.
의주가 천천히 양손을 위로 들더니 고무장갑을 벗어 던지곤 맨손을 드러낸다.
5미터 높이의 입구 건물을 향해 돌진하더니 벽의 틈을 붙잡고 맨손으로 오르기 시작하는 의주.
몸을 싸고 있는 비닐 때문에 몇 번 미끄러지기도 하지만 입구 건물을 오르는 데 결국 성공한다.
입구 건물로 올라와서 주변을 바라보는 의주, 도시가 마치 구름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의주

이용남!!... 이 개새끼야! 혼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나 보자!
이 매정한 새끼!! 나쁜 놈아!!
(멀에서 쿵! 문 열리는 소리가 동시에 들리며)
내가! 내가! 너!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다! 이용남 이런 씨!!

누군가의 다급한 발소리와 이어지는 쿵! 쿵! 쿵! 소리에 말을 멈추고 뒤돌아보는 의주.
입구 건물 뒤편에 붙어있던 사다리를 타고 올라온 용남이 고개를 숙여 내민다.

의주

... 발놈아.... 호흑...

의주에게 달려와 정화통을 빠르게 교체시켜주는 용남.

의주

(용남을 때리며 서럽게 우는)
... 호흑... 이 나쁜 놈아... 흑흑흑...

용남

움직이지 좀 마!! 내가 기다리라 그랬잖아!!

용남이 자신의 정화통을 빠르게 교체하는 순간, 밀려온 가스에 두 사람의 모습이 사라진다.

56. 병원, 입구 - 실외/밤

허겁지겁 병원 입구를 빠져 나오는 장수. 택시 한 대가 서 있는 걸 발견하고 달려간다.

장수

(시동을 끄고 차 밖으로 나오는 기사에게)
저기!! 저기 중대천!! 중대천 쪽으로 갑시다!! 빨리!!

택시기사

예? 아니 그쪽 난린 거 모르세요!? 대피하라고 그래서 저도 지금 집에 짐 싸러 가야 돼요!

장수

제발 잡시다!! 예?! 내 아들이 지금... 그 안쪽에 있어요... 부탁합니다!! 근처까지라도 제발 좀 잡시다! 기사 양반!!

택시기사

못 가요!! 어차피 근처 다 통제해서 못 들어간다고요!!

장수

(안쪽 주머니에 넣어뒀던 칠순잔치 때 받은 봉투들을 꺼내며)
이거 얼마진 모르겠는데!! 제발 잡시다!! 부탁드립니다!!

택시기사

(장수의 손을 뿌리치며)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니까요!

셋째 숙부

형님!!

장수가 뒤돌아보면 둘째와 셋째가 서 있다.

둘째 숙부

형님! 같이 잡시다! 혼자 어딜 가려 그래요!

장수

(셋째가 등에 메고 있는 공기 호흡기를 바라보며)
너... 등에 그건 뭐냐...

셋째 숙부

오다 주웠어요! 필요할 지도 몰라서! 해병대가 못 할 게 뭐가 있어요!

택시기사

(갑자기 거수경례를 하며)
....필... 승...

셋째 숙부

... 기사 양반... 몇 기야?

점프.

택시 뒤에 붙어 있는 해병대 전우회 스티커. 부웅! 택시가 빠르게 출발한다.

57. 건물 B (24시 피트니스) - 실내/밤

멀리 보이는 엔서화학과 도시의 전경. 화면 넓어지며 7층 높이 건물 일부분이 측면에 들어온다.

투명한 창을 통해 비상계단을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용남과 의주가 보인다.

옥상 문 앞에서 잠긴 문을 흔들어대다가 다시 아래층으로 빠르게 내려가는 두 사람.

24시 피트니스.

빠른 비트의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는 피트니스 클럽 내부로 들어오는 두 사람.

사람들은 모두 대피한 듯 바닥에 수건들만 널브러져 있다.

용남이 팔에 붙어 있는 핸드폰의 스톱워치를 확인하려는데 전원이 다해서 이미 꺼져있다.

근처 운동기구 위에 놓여있던 핸드폰을 하나 주워서 챙기는 용남.

서로 찢어지듯 반대 창가로 달려가 각자 방향의 상황을 살피는 용남과 의주.

다시 가운데로 모이는 두 사람, 서로에게 외치기 시작하지만 방독면 때문에 소통이 어렵다.

답답한 듯 방독면을 벗으려던 용남, 대형 선풍기로 달려가 강하게 틀고는 그 앞에서 제자리 팔 벌려 뛰기를 시작한다. 용남의 손짓과 재촉에 선풍기 앞으로 와서 팔 벌려 뛰기를 따라하는 의주. 몇 차례 팔 벌려 뛰기를 하고 난 후 방독면을 벗어 재끼는 두 사람, 숨을 크게 몰아쉰다.

의주

헉! 헉!... 저쪽은 길이 없어!!

용남

헉... 헉... 이쪽으로 와봐!!

의주를 데리고 창 쪽으로 이동하는 용남. 건너편에 있는 건물 C가 보인다.

이곳과의 거리는 7미터, 높이는 6층이고 가스는 5층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용남

(의주의 방독면을 뺏더니 새 정화통으로 교체하며)

너 내려가서 저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 올라가면 내가 어떻게든 그쪽으로 로프를 던질 테니까! 그걸 연결해서!

의주

그냥 같이 가면 되잖아?!!

용남

(방독면을 씌워 주려하며)

... 이게 마지막이야... 로프를 던지려면 내가 여기 있는 게 나야!!

시간 없어 빨리 가!!

의주

... 잠깐만! 근데... 저 건물 일층이나 옥상 문이 잠겨 있으면 어떻게...?

순간, 당황한 표정으로 말을 잇지 못하는 용남.

58. 중내천, 구석 - 실외/밤

미끄러지며 하천으로 몰래 내려오는 두 남자. 주변을 살피며 속닥거리기 시작한다.

동생

형... 우리 걸리면 감방 갈 수도 있어...

형

원래 난세에는 우리 같은 사람이 등장하게 돼 있어... 다 얘기 된 거니까... 걱정 하지 마...

동생

남들은 저 안에서 죽네 사네 그러고 있는데 형도 진짜 개놈이야...

형

나도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야! 막내나 빨리 꺼내!!

동생이 하드케이스를 열자 안에 촬영용 드론이 들어있다.

59. 건물 B (24시 피트니스), 건물 C (화로구이) - 실내,외/밤

용남이 던진 8kg 아령이 로프에 연결된 채 건물 C의 옥상으로 떨어진다. 퍽!

용남

삼십 이!!

용남이 던진 아령과 연결된 로프 끝을 옆에 있는 단단한 기구에 묶는 의주.
건너편 건물 난간엔 이미 던져놓은 12kg 아령이 두 개가 로프에 묶인 채 걸려있다.

용남

(다시 10kg 아령을 건물 C로 던지고)
사십 이!!

의주가 내미는 18kg 케틀벨을 잡고 던지려다 도저히 안되겠다는 표정의,

용남

옥... 다른 거!!
(의주가 내미는 10kg 아령을 던지곤)
오십 이!

의주

(아래 올라오는 가스를 바라보고)
오빠!! 내가 먼저 갈게!!

용남

아니야!! 내가 먼저!!

의주

시간 없어! 내가 오빠보다 가볍잖아!!

용남

너 몸무게 몇인데?! 지금까지 던진 걸로 버틸 수 있어!?

잠시 망설이는 의주, 갑자기 뭔가를 건물C 옥상 쪽으로 힘껏 던진다.
건물C 옥상으로 5kg 아령이 떨어진다. 퍽!

의주

이제 됐어!!

점프.

용남의 몸과 자신을 로프로 연결한 뒤 로프에 조심스레 올라타는 의주.
건물 C 옥상의 아령들이 흔들리다가 뭉치며 의주의 무게를 잡아준다.
살짝 경사진 로프, 의주가 중심을 잡으며 빠르게 앞으로 나간다.
의주의 빠른 움직임에 걸려 있던 아령들이 출렁이며 위로 살짝 들리더니 작은 아령 하나가 난간
밖 아래로 떨어진다. 줄이 늘어지며 중심을 잃고 거꾸로 매달리는 의주.

용남

의주야!!

의주

괜찮아!

이내 중심을 잡으며 앞으로 나아가는 의주.
화면 점점 넓게 빠지며 보이는 로프를 건너는 의주의 모습과 건물 C의 전경.
건물 C의 5층까지 올라온 가스와 창문에 붙은 화로구이 집 표시가 눈에 들어온다.

5층 화로구이 집.

사람들이 대피하며 어질러진 내부. 불판 위 고기들이 까맣게 타며 연기를 내뿜고 있다.
의자 높이로 깔려 있던 가스가 테이블 위로 서서히 올라오기 시작한다.

건물 C 옥상.

옥상으로 넘어온 의주, 아령에 묶인 로프를 풀어 어딘가에 묶어보려 하지만 길이가 짧다.

의주

(아령들을 자기 발로 깔고 로프를 한데 모아 잡으며)
오빠! 내가 잡고 있을게 넘어와!!

5층 화로구이 집.

테이블을 덮으며 불판으로 이동한 가스가 위에 붙은 환풍관을 통해 순식간에 빨려 들어간다.

건물 C 옥상.

24시 피트니스 창가에서 로프를 잡고 밖으로 몸을 내미는 용남, 순간!
화로구이 집에서 올라온 가스가 건물 C 옥상 모서리에 붙어있던 환풍관 끝을 통해 쏟아진다.

용남, 의주

우아악!!

순식간에 퍼져가는 가스에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나는 두 사람.
가스가 두 건물 사이 공간으로 퍼져가며 두 사람을 갈라놓기 시작한다.

의주

어헉... 오빠!!

용남

으... 의주야! 피해!! 먼저 가!! 가라고!!

용남의 모습이 가스에 가려 점점 사라진다. 가스가 다가오지만 쉽게 자리를 뜨지 못하는 의주.
가스에 가려져 용남은 보이지 않고, 의주는 다가오는 가스에 점점 뒷걸음질 치고 있다.
용남과 연결된 로프를 풀어야 하는 상황에 갈등하는 의주.
순간! 쿵! 소리와 함께 옥상 바닥으로 떨어지는 18kg 케틀벨.
뿌연 가스를 뚫으며 방독면을 쓴 용남이 줄을 잡고 건너오고 있다.
빠르게 옥상으로 넘어오는 용남, 방독면을 벗어 던지곤 의주와 함께 옆 건물을 향해 달린다.
건물 C 옆에 붙어있는 10층 높이의 상가건물과의 간격은 1미터 정도다.
옆 건물 상가건물 외벽은 매끈한 재질이라 위로 오를 수도 없는 상황.

몰려오는 가스를 피해 건물 사이 틈으로 몸을 빠르게 집어넣는 용남과 의주.
두 손과 발로 벽을 간신히 지지하며 버티기 시작한다.
위와 아래에서 올라오고 있는 가스에 갇힌 채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에 빠지는 두 사람.
두 사람이 주변을 빠르게 살피곤 대각선 몇 미터 아래 있는 작은 테라스를 향해 이동한다.

60. 병원, 로비 - 실내/밤

로비에 모여 있는 용남의 가족들. 대형 TV 화면에서 나오는 현재 상황들.

유독가스 전문가 (소리)

현재 다량의 물을 뿌려 제거 시키는 방법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국에 있는 살수차에 횡집 차까지도 불러 모으고 있지만 시간은
결릴 겁니다. 하... 갑자기 폭우라도 내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호가 갑자기 울기 시작하자 참았던 울음을 하나 둘 터트리는 가족들의 모습.

셋째 누나

(주변을 둘러보며)
호호... 엄마랑 아빠는...

둘째 누나

...호호... 어른들 다 어디 가신 거야...

61. 중내천, 구석 - 실외/밤

하천 언덕을 미끄러지듯 내려오는 장수 삼형제와 택시기사.
맞은 편 넓은 하천 너머 멀리 가스에 싸여 있는 국제 미래 신도시의 모습이 보인다.
놀란 표정으로 이를 바라보는 장수와 동생들, 택시 기사.
덜덜 떨고 있는 장수의 뒷모습을 바라보다 절망한 표정으로 다가오는,

둘째 숙부

(울먹이며)
형님... 형님... 우리 용남이... 어떡해요...

장수

(뭔가 느낌을 받았다는 표정으로 뒤돌아보며)
... 살아있어... 용남이 이놈 분명히 살아있어...!

갑자기 위잉! 소리와 함께 옆 풀숲 너머로 떠오르는 드론을 바라보는 장수 일행.

풀숲에 가려져 서로를 보지 못했던 장수 일행과 드론형제가 한 공간에 자릴 잡고 있다.

62. 건물 D (종합상가), 보습학원 - 실외/밤

옥상 문이 열리며 등장하는 용남과 의주, 각자 흩어져 건물 밖 주변 상황을 살펴본다.
10층 높이인 이곳 옥상과 가스와는 높이 차가 있는 상황.
의주가 벽에 붙은 스위치를 발견해 누르자 옥상정원에 부분적으로 조명이 들어온다.

의주

(뒤편에 있던 사람의 형체를 보고 놀라며)
어헉!!

의주와 조금 떨어진 거리에서 119와 통화를 하고 있는,

용남

대피할 곳이 없다고요!! 암길 쇼펍센터요! 지금 두 명... 헉!
(뭔가를 들고 달려오는 의주를 보고 놀라서 말을 못 잇다가)
아니... 이십 명 넘어요... 애, 어른, 임산부, 노약자 할 거 없이 다
있어요!! 네! 엄청 많아요 여기!!

점프.

옥상 가운데 세워져 있는 상가 내 점포들의 광고 등신대. 여행사, 혼수품, 음식점 등 다양한 종류.
등신대 사이에 서있는 용남과 의주, 멀리서 보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듯 보인다.
가스에 노출돼 빨갭게 변한 용남의 손을 발견하는,

의주

(용남의 뺨 뺨을 뒤져 생수병을 꺼내 들고)
손 쥐봐!

용남의 손에 생수를 부어주는 의주. 용남도 빨갭게 변한 의주의 손을 발견한다.

용남

너... 손이... 왜 이래!

생수병을 뺏어 의주의 손에 부어주는 용남. 의주가 쓰라린 듯 인상을 쓴다.
빨갭게 변한 자신과 용남의 손을 바라보며 떨리는 눈빛의 의주.

용남

(물이 떨어지자 가방을 뒤지며)
온다고 했어! 이번엔 진짜 우리 차례일거야!

갑자기 옆으로 피어나는 검은 연기에 놀라 의주를 바라보는 용남.
의주가 옆에 있는 등신대에 라이터로 불을 붙이고 있다.

용남

(등신대로 달려들어 불을 끄며)
너... 뭐하는 거야!

의주

(다른 등신대에 불을 붙이며)
이거 다 불 지르자...

용남

(등신대의 불을 끄며)
너 왜 그래!! 불을 왜 질러!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의주, 옥상 모서리 쪽에 세워져 있는 작은 원두막으로 달려간다.
라이터를 들고 달려간 의주, 원두막 지붕의 지푸라기에 불을 붙이려 한다.

용남

(의주를 붙잡고 말리며)
의주야! 하지 마!! 하지 말라고!!

의주

(울먹이며)
불 지르면 눈에 떨 거 아냐! 이렇게 까지 했는데... 우릴 못 보잖아... 아무도 우릴 발견 하지 못하고 있잖아...!

학생들

저기요!! 여기요!!!

갑자기 어디선가 들려오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는 용남과 의주.
대로변 건너 맞은편 건물 꼭대기 층에 보습학원이 보인다.
환한 교실 안, 십 여 명쯤 되는 학생들과 여선생이 창문 밖으로 용남과 의주를 바라보고 있다.

학생들

(창문으로 고개를 내밀며)
살려주세요! 저희 좀 살려주세요!!

의주

재들 거기서 뭐하는 거야...

용남

...너희 뭐해! 빨리 옥상으로 올라가!

학생1

잠겼어요! 옥상 문이 잠겼다고요! 신고 했는데도 안 와요!!

용남

이 동네 뭐야... 왜 옥상문은 다 잠그는데!!

밀려 온 가스가 옆 건물 옥상을 덮고 보습학원 쪽으로 가까이 다가와 있는 위기의 상황.

의주

(옥상 모서리 쪽으로 달려가서 소리치며)

애들아! 옆에 봐! 저기 옆에 간판 다는 데 보라고!!

옥상 위 용남과 의주 모습 너머로, 저 멀리 불타고 있는 주유소의 검은 연기가 보인다.

63. 중내천, 구석 - 실외/밤

장수

제발 부탁 좀 합시다!! 거기로 한 번 가 봅시다!! 저기 우리가 있
던데 거기 이름이 뭐지!?

둘째 숙부

암길동 32-1 라이온빌딩 6층 구름정원!!

형

아! 진짜! 저희 공무집행 중이니까 방해하지 좀 마세요!!

셋째 숙부

공무 집행을 뭐 이리 숨어서 해!! 어디서 나왔는데?

형

... 국세청요... 저리 좀 가시라고요...

둘째 숙부

국세청? 이진규 국장 알아?! 내 서울대 후배데?!

장수

(가슴팍에서 돈 봉투를 꺼내며)

내 아들이... 저 안에 있어요... 제발... 제발 부탁 좀 합시다!!

동생

형 어떡해...

형

아이씨... 돌겠네 진짜...

64. 건물 D (종합상가), 보습학원 - 실외/밤

창문을 열고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오는 건장한 남학생, 허리엔 소방 호스가 묶여있고 교실 안 학생들은 모두 호스를 꼭 붙잡은 채 떨리는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남학생이 창문턱을 밟고 위태롭게 서더니 간판용 철봉지지대를 향해 손을 길게 뻗는다.

용남

그래 잘한다... 좀만 더... 좀만...

남학생이 위태로운 자세로 손을 쭉 뻗자 철봉지지대에 손가락 끝이 간신히 닿는다.

의주

됐다!! 잡아!!

순간 몸의 중심이 흔들리며 순식간에 아래로 추락하는 남학생, 지켜보던 모든 이들이 놀라서 비명을 지른다. 소방호스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남학생을 끌어올리기 시작하는 아이들.

의주

헉... 어떡해!!

그 때! 갑자기 들려오는 헬기 소리, 용남과 의주를 향해 강한 서치라이트가 비춰진다. 잠시 놀란 표정을 짓다가 다가오는 헬기를 향해 소릴 질러대는,

용남, 의주

여... 여기요! 여기! 와아! 여기라고! 살려주세요!!

헬기는 보습학원 건물 뒤흘 방향에서 다가오고 있어 학생들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용남

여기요!! 됐다!! 이제 살았어! 의주야 우리 살았다고!!

남학생을 끌어올리는 맞은편 건물 학생들의 모습이 처절하다. 안타깝게 이를 바라보는,

의주

재들... 재들은 어떡해... 저기부터 가야 되는 거 아냐...

용남

아냐! 우리부터 먼저 타야 돼!

의주

시간 없어! 재들 저러다가!!

용남

우리도 시간 없어! 빨리 타고 가서 도와주면 돼! 우린 수가 적잖

아! 아까도 그랬잖아!!

(학원 쪽으로 고개를 돌리며)

재들 먼저 태우려다간... 우리는...!

순간 보습학원을 바라보곤 말을 잊지 못하는 용남, 학생들이 울면서 서로를 끌어안고 있다.

보습학원 층에 닿은 가스와 학생들, 헬기를 번갈아보며 갈등하는 용남.

결국 도저히 안되겠다는 표정으로 의주를 바라본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헬기를 향해 소릴 지르기 시작하는,

용남, 의주

여기! 여기 말고! 저기로! 저쪽! 저쪽이라고! 저기 보라고요!

아무리 소릴 질러도 헬기는 두 사람의 의도를 알아채지 못하고 계속해서 다가온다.

용남

에이씨! ... 의주야!! 이리 와!!

헬기 안.

둘의 모습을 보고 이상하단 표정을 짓는,

기장

뭐하는 거야? 왜들 저래...?!

헬기 조종석 시점, 등신대들을 모아 옥상 바닥에 배열하는 용남과 의주.

의주가 바닥에 드러눕자 용남이 의주의 정수리 부분에 배꼽부분을 대며 옆으로 눕는다.

몸을 안쪽으로 쭈욱 굽히더니 '人' 모양을 만드는 용남.

용남

저쪽이라고!! 저쪽!! 저기 좀 보라고!!

부기장

어?... 화살표다! 저거 화살표예요!

등신대와 자신들의 몸을 이용해 맞은편 보습학원을 가리키는 큰 화살표 모양을 만든 두 사람.
헬기가 방향을 틀어 보습학원을 서치라이트로 비추면, 창문 밖으로 학생들이 손을 흔들고 있다.
헬기가 보습학원 옥상으로 진로를 바꾸며 다가간다. 일어나서 이 모습을 바라보는 용남과 의주.

용남, 의주

빨리! 빨리!! 빨리!!!

구조 바스켓이 보습학원 옥상에 안착하자 구조대원이 나와 옥상 문을 열고 안으로 진입한다.

용남

(아이들이 하나 둘 옥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며)

괜찮아! 괜찮아!! 아직 우리한테 올 시간 있어!!!

갑자기 펑!!! 소리와 함께 멀리 보이는 주유소에서 큰 폭발이 일어난다.
근처 소방 헬기 시점으로 바라보면, 폭발 파동에 의해 가스가 빠르게 주변으로 퍼져가고 있다.

헬기 무전

본부 상황!! 현재 시 주유소 폭발!! 폭발로 인해 가스 주변으로
빠르게 확산 중!!

멀리서 빠르게 퍼져오는 가스를 바라보는 용남과 의주, 소릴 지르며 옥상 끝 난간으로 달려간다.
의주가 난간 아래 뭔가를 발견하더니 용남을 붙잡아 끌고 옥상 문 쪽으로 달려간다.

65. 병원, 운동장 - 실외/밤

셋째 매형과 셋째 누나의 부축을 받으며 병원 쪽으로 향하는 현욱,
용남에게 계속 전화를 걸고 있다.

현욱

흑흑... 용남아... 어딴니... 왜 전할 안 받아... 호호흑...

셋째 누나

배터리 다 되서 꺼진 걸 거야! 걱정 마! 벌써 구조 됐을 거야...

주변 사람

주유소에서 방금 폭발 일어났다는데! 이렇게 되면 거기 있는 사
람들 답 없는 거 아냐? 가스 지금보다 더 빠르게 퍼질 텐데...

이 소리에 갑자기 몸을 휘청거리다가 쓰러지는 현욱.

셋째 매형

장모님!! 장모님!!!

셋째 누나

엄마!! 엄마아!! 여기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66. 건물 D (종합상가), 육교 - 실내,외/밤

4층으로 내려와 복도 끝에 위치한 인테리어 쇼룸으로 들어오는 두 사람.

대로변 쪽 창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면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철거 중인 육교가 보인다.

하단은 가스에 잠겨 보행로만 보이는 상황.

밖으로 뛰어내리려다가 옆에 전시된 침대로 달려가는 의주와 용남.

매트리스를 들더니 창문 밖으로 집어던지곤 생각할 거 없이 빠르게 육교 위로 뛰어내린다.

매트리스 위로 떨어져 데굴데굴 구르는 두 사람, 벌떡 일어나 땀다 튀기 시작한다.

달리는 두 사람의 측면, 가스가 두 사람을 삼키려는 듯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다.

필사적으로 달리던 두 사람이 하늘을 보면, 보습학원 아이들을 태운 헬기가 무사히 떠나고 있다.

육교 끝으로 달려온 두 사람, 제거된 채 주변에 놓여있던 철제 난간을 앞에 보이는 건물 벽에 대고 사다리를 타고 오르듯 빠르게 이동하기 시작한다.

순간! 갑자기 들리는 엔진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머리 위로 등장하는 드론 한 대.

67. 중내천, 구석- 실외/밤

장수 형제들, 드론 형제, 택시기사

(조종화면을 바라보다가 놀라서)

우오오오오!!

장수

... 용... 용남아... 용남아!!

경찰

(소릴 지르며 달려오는)

누구야! 거기 뭐하는 거야!!

육교 위.

드론을 보고 놀란 것도 잠시, 몰려오는 가스를 보고 재빨리 건물 위로 올라가는 용남과 의주.

중내천, 구석.

경찰

(둘째, 셋째 숙부와 택시 기사에게 저지당하며)

냐요!! 이거 드론이죠! 지금 비행 금지 거 몰라요?! 구조에 방해
된다고요! 사람들이 생각이 있어 없어! 빨리 꺼요! 빨리!! 안 꺼?!

동생

(경찰에게 조종 화면을 들이밀며)
여기 보라고요! 있잖아요! 사람!!

경찰

우어어어!!

장수

내 아들입니다!! 애가 내 아들이에요!! 애 좀 빨리 구해주세요!!

소동을 틈 타 옆에 있던 드론 형이 핸드폰을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건다.

CBA 방송국, 부조정실.

전화를 받고 있는 보도국장, 옆에서 부하직원이 드론 형이 보낸 링크를 누른다.

보도국장

나와?!

부하직원

(모니터에 나오는 용남과 의주의 모습을 바라보고)
네! 나옵니다! 두 명이에요!!

보도국장

(드론 형과 통화를 하며)
가격은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린 이거 그냥 제보 받은 거야...

병원, 로비

CBA 앵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국제미래신도시 가스테터 현장에서 대
피중인 시민의 모습이 소속을 알 수 없는 드론에 포착됐습니다!
저희 방송국에 제보된 화면! 독점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달리고 있는 용남과 의주의 모습이 TV생중계 화면으로 나오기 시작한다.
TV를 보고 있다가 놀라서 소릴 지르는 용남의 조카,

지호

삼촌이다! 용남이 삼촌하고 아까 그 누나야!

가족들

용남아! 흑흑흑! 아이고 용남아! 살아있었어! 으흑흑흑!

전국 곳곳.

생중계 되는 두 사람의 모습을 가정집, PC방, 기사식당, 핸드폰 등을 통해 지켜보는 사람들.

중내천, 구석.

장수

(조종화면을 바라보며 울먹이며)

용남아!! 크흑! 용남아아!!!

건물 E, 옥상.

길게 뻗은 옥상 위를 미친 듯이 달리는 용남과 의주의 모습.

고시원 방.

이어폰을 낀 채 핸드폰 화면을 보면서 소리치는 용남과 의주의 산악부 선배,

기백

(울먹이며)

용남아! 의주야! 시발 달려 이 새끼들아! 달려!!

시끄러운 소리에 옆방 누군가가 계속해서 벽을 쿵쿵!! 두들긴다.

68. 처절한 질주 - 실내,외/밤

건물 F.

옥상을 질주해 앞에 보이는 공사 중인 건물로 점프해 들어가는 용남과 의주.

건물 G. (공사건물)

아직 덜 마른 시멘트 바닥 위로 착지 하는 두 사람, 달리는 두 사람의 족적이 바닥에 새겨진다.

내부의 천막, 비닐, 먼지, 자재들을 피해 앞으로 달리는 두 사람.

뒤편 뚫려있는 공간 사이로 가스들이 빠르게 쫓아온다.

병원, 로비.

지호에게 이끌려 링거를 단 채 로비로 나오는,

현우

용남아... 우리 용남아 어딴어...

(용남의 모습을 TV화면에서 발견하고)

요... 용남아... 용남아! 으흑흑!!

건물 H.

두 상가 사이를 잇는 20여 미터 길이의 통로 위로 올라가는 용남과 의주.

빗면으로 된 지붕 형태의 바닥이라 자칫하면 아래로 미끄러져 떨어질 것 같은 상황.

당황한 표정으로 바라보던 두 사람이 갑자기 서로의 손을 꼭 붙잡더니

나란히 선 채 서로의 몸을 반대로 향하게 하고 무게중심을 맞추며 앞으로 달리기 시작한다.

69. 건물 I - 실외/밤

건물 외벽에 달린 간판과 조형물을 이용해 합심해서 옥상을 향해 오르는 용남과 의주.

힘겹게 옥상으로 올라와 반대편 끝에 보이는 공사 중인 고층 건물을 향해 전력 질주한다.

점점 거리가 가까워지는 고층 건물, 두 사람 눈에도 희망이 조금 보이는 듯하다.

천천히 속도를 줄이며 난간으로 붙는 두 사람, 자세히 보면 눈빛이 떨리고 있다.

드론이 공중으로 붕 뜨며 부감으로 상황을 보여주면,

두 사람이 있는 건물과 공사 중인 고층 건물은 30여 미터 떨어져 있다.

이 상황을 TV로 지켜보던 모든 이들이 탄식을 내뿜으며 안타까운 표정을 짓는다.

천천히 뒤를 돌아보는 용남과 의주, 절망한 표정으로 몰려오는 가스를 바라본다.

순간! 갑자기 가스를 향해 빠르게 날아가는 드론! 좌우로 이동하며 가스를 밀어내기 시작한다.

70. 중내천, 구석 - 실외/밤

조종 화면을 보며 집중하고 있는 드론 형제와 장수 형제, 경찰이 훈수를 두며 소리치는 상황.

경찰

여기 왼쪽!! 다시 오른쪽!! 빨리 빨리 좀 해봐요!!

동생

아이씨!! 조용히 좀 해요!! 집중이 안되잖아!!

드론이 가스를 밀어내며 시간을 버는 것도 잠시, 점차 가스에 둘러싸이기 시작한다.

결국 한쪽 난간 벽에 부딪혀 중심을 잃고 추락하는 드론, 영상 신호가 끊기며 중계도 끝난다.

병원, 로비.

끊겨버린 TV화면을 보고 아무 말도 못하는 용남의 가족들.

앵커 (소리)

방송 화면이 고르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 다음으로 중내천 부근 현장중계차와 연결해보겠습니다.

71. 건물 I - 실외/밤

용남

(몰려오는 가스를 바라보며)

... 잘될 거라 그랬는데... 다들 잘될 거라고 그랬는데... 흑흑... 으
흑흑호... 이게 뭐야... 흑흑... 이게 뭐냐고!!

의주

(건너편 건물을 바라보며)

...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분명 가까워 보였는데...

(텐탈이 무너져서)

... 으으... 엄마... 아빠... 나 이제 어떻게! 흑흑흑...

용남

으흑흑흑! 엄마! 아빠! 미안해! 내가 금방 간다 그랬는데! 으흑흑!
이 못난 자식 용서하세요! 죄송합니다... 으흑흑...

의주

으형형... 아아... 나 진짜 이렇게 죽기 싫어!! 싫다고!! 으흑흑...
하고 싶은 거 많았는데... 진짜 너무한다!! 어떻게... 어떻게 이렇
게... 흑흑흑... 여기까지야...?! 우리 진짜 여기가 끝나냐고...

서로를 끌어안으며 통곡하는 두 사람.

용남

의주야... 미안해 이게 다 나 때문이야!! ... 누나들이 떨어져 안된
다고 하는 걸 내가 우겨가지고!! 무조건 여기서 해야 된다고... 내
가 안 그랬으면 큰누나나 우리 가족들, 너도 이 고생 안할 텐데...
으흑흑... 아아... 이번엔 불을 줄 알았는데... 무조건 될 줄 알았는
데... 그래서... 그냥... 그냥 한 번... 네 앞에... 으흑흑...

반응이 없자 의주를 바라보는 용남, 의주가 놀란 표정으로 뭔가를 바라보고 있다.

뒤돌아보는 용남, 하늘에서 처음 보는 드론이 한 대 내려오고 있다.

넓은 화면으로 빠지면, 두 사람 주변으로 드론 십여 대가 모여들고 있다.

인서트.

차 안, 아파트 옥상 등 여러 곳에서 드론을 조종 중인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

용남과 의주의 주변으로 내려온 드론들이 마치 전투기처럼 빠르게 가스를 향해 날아가더니
각자 포지션을 잡고 빠르게 움직이며 가스를 밀어내기 시작한다.

떨리는 표정으로 이 모습을 바라보는 용남과 의주. 두 사람 뒤로 드론이 또 한 대 나타난다.

순간적으로 뭔가 떠오른 용남, 드론을 향해 다가오라는 손짓을 보낸다.
드론이 가까이 다가오자 용남이 주머니에서 분필 조각을 꺼내 바닥에 뭔가 그리기 시작한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드론이 용남의 의도를 알았다는 듯 꼬덕거리는 동작을 취한다.
가방에서 마지막으로 하나 남은 완강기 로프를 꺼내는 용남.

소망 3호 헬기.

허 기장

(무전을 하며)

네 가고 있습니다!! 5분 내로 도착합니다!!

건물 I, 건너편 고층 건물.

몸체에 로프가 묶여있는 드론이 빠르게 건너편 공사 중인 고층 건물로 날아간다.
뚫려있는 공간으로 들어가 콘크리트 기둥을 빠르게 빙빙 돌며 로프를 감는 드론.

인서트. 아파트 베란다에서 드론을 조종하는 누군가의 작은 손.

중내천, 구석.

셋째 숙부에게 용해가 보낸 카톡 링크가 날아온다.

병원, 로비.

용남과 의주의 모습을 생중계 중인 또 다른 드론의 화면을 찾아 가족들에게 보여주는 용해.

건물 I, 건너편 고층 건물.

용남과 의주가 있는 건물과 건너편 고층 건물 사이에 로프가 살짝 경사지게 연결된다.
두 사람 뒤편 가스를 밀어내고 있는 드론 특공대의 상황은 절망적이다.
어딘가에 부딪혀 추락하고 배터리 부족으로 돌아가는 등 이제 남은 드론이 거의 없다.
난간을 넘어가는 용남과 의주, 서로의 몸을 로프로 묶은 뒤 타고 갈 로프에 카라비너를 건다.

용남

(떨리는 표정을 감추고 웃어 보이며)

... 우리 완등가자!

의주

(눈물을 글썽이며)

... 그래... 가자 완등...

자세를 잡는 두 사람. 용남이 아까 분필로 바닥에 그린 유치원생 수준의 그림을 보면,
두 사람이 있는 건물과 건너편 고층 건물 사이에 선이 쭉 연결돼 있다.

용남

하나!!

의주

... 둘!!

동시에

셋!!

난간 아래로 몸을 내던지는 두 사람.

생각과 다르다, 빠르게 쭈욱 미끄러져 갈 거라 기대한 모습과 달리 뛰자마자 로프가 늘어지며 그대로 공중에 매달리는 두 사람. 당황해서 로프를 잡고 당겨보지만 앞으로 잘 나아가지 못한다. 건너편 고층 건물 쪽 드론이 점점 벽 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상황, 로프가 조금씩 늘어지고 있다. 앞으로 가지도 못한 채 버둥거리며 매달려 있는 용남과 의주, 이대로 있다간 곧 아래로 추락한다. 죽을힘을 다해 로프를 붙잡고 당기며 앞으로 향하는 용남. 순간! 뒤에서 소릴 지르는,

의주

이용남!! ... 꼭 잡아!!

용남이 돌아보면, 어느 새 의주가 가방에서 절단기를 꺼내 뒤쪽 로프에 대고 있다.

대꾸할 틈도 없이 놀란 표정으로 앞 쪽의 로프를 파악 잡는 용남!

의주가 절단기에 힘을 가한다. 투툽! 딱! 뒤편의 로프가 절단되자 소릴 지르며 날아가는,

용남, 의주

우아아아아!!

병원 로비의 현욱과 가족들

우아아아아!!

중내천의 장수와 숙부들

우아아아아!!

용남과 의주가 포물선을 그리며 낙하한다. 주변 가스로 인해 마치 구름 위를 나는 듯 보인다.

건너편 고층 건물을 향해 빠르게 날아가는 두 사람.

로프를 당기며 버티고 있던 드론이 결국 콘크리트 기둥과 충돌하며 부서지자 감겨있던 로프가 빠르게 풀린다. 로프가 풀리며 힘을 잃자 날아가던 두 사람도 그대로 추락한다.

건물 하단에 설치된 안전그물망에 튕겨 건물 안쪽으로 먼지를 일으키며 사라지는 용남과 의주.

병원, 로비.

용혜의 핸드폰 화면을 보던 가족들 모두 잠시 할 말을 잃는다.

현욱

(핸드폰 화면을 만지며)

용남아... 용남아....

중내천, 구석.

장수

(물가로 달려 들어가며)

용남아... 용남아 아빠가 간다!! 용남아!!! 크흑!!

둘째, 셋째 숙부

(장수를 말리며)

형님!!

72. 몽타주 - 실내,외/새벽

- 국제 미래 신도시의 거대한 빌딩숲을 향해 날아가는 카메라.
- 뿌연 가스 안개 속을 지나는 카메라, 구름정원 내부에 도착해 주변을 훑는다.
- 고시원 방, 기백이 벽에 머릴 찢으며 울먹이고 있다.
- 용남과 의주가 사라진 건물 현장에 도착한 소방 3호 헬기가 주변을 탐색한다.
- 24시 피트니스와 옆 건물 사이에 이어져 있는 로프.
- 화로구이 건물과 종합상가 사이 틈의 모습.
- 소방 3호 헬기가 건물 I의 주변을 훑는 모습.
- 종합상가 옥상, 바닥에 놓여있던 등신대들의 모습.
- 이미 가스에 모습이 사라져 보이지 않는 육교.
- 용남과 의주가 밟고 간 공사건물 시멘트 바닥에 발자국이 찍혀있다.
- 병원에서 울고 있는 현옥과 가족들의 모습.
- 장수 삼형제가 해병대 전우회 택시를 타고 달리고 있다, 울고 있는 장수의 모습.
- 용남과 의주가 마지막으로 끊었던 로프의 끝이 건물 난간에 묶여있다.
- 한참이나 주변을 수색하던 소방 3호 헬기.

허 기장

(안타까운 표정으로 무전을 하며)

... 다른 현장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헬기가 상승하며 기수를 돌리는 순간. 야간투시경을 쓴 채 주변을 살피다 갑자기 소리치는,

재민

기장님!! 정지!! 8시 방향!! 타워크레인요!!

헬기가 고층 건물 옆에 붙어있던 타워크레인 위를 서치라이트로 비춘다.

뭔가 발견하고 놀란 표정을 짓는 허 기장과 재민.

타워크레인의 쪽 뺨은 봄의 중간에서 축하용 불꽃스틱에 불을 붙여 흔들고 있는 용남과 의주.

- BGM 시작 '슈퍼히어로' (이승환)

타워크레인.

전신이 먼지에 뒤덮인 채 타워크레인의 쪽 뺨은 붉은 꼭대기로 올라오는 용남과 의주.
헬기가 두 사람을 향해 다가온다.

고층 아파트 베란다.

드론 조종기를 손에 든 소년이 저 멀리 국제미래신도시를 바라보고 있다.

가스 저지선.

가스를 향해 필사적으로 물을 뿌려대는 소방구조대원들.
깊은 가스를 뚫고 방독면을 쓴 시민들 몇몇이 튀어나온다.

중내천, 구석.

경찰차 뒷좌석에 타고 있는 드론 형제, 동생은 침울한 표정으로 밖을 바라보고 있다.

경찰

(앞좌석에 올라타며)

아까 그 두 사람 발견해서 구조하고 있다던데?

형

진짜요?! 아 천만다행이네요!

(동생을 바라보며)

봐 인마... 막내가 헛되게 간 게 아니야...

(경찰을 바라보며)

저기 선생님... 그럼... 저희는 가도 될까요?

경찰

갑시다... 조사받으러!

소방 3호 헬기, 구조바스켓 안.

가스로 뒤덮인 도시를 빠져나가는 헬기. 용남과 의주의 눈에서 눈물이 쭈르륵 흘러내린다.

73. 병원 - 실내,외/아침

응급실.

첫째 매형

(달려와 정현의 손을 꼭 잡고)

정현아! 오고 있대!! 용남이 지금 이리로 오고 있대!!

산소 호흡기를 착용하고 있던 정현, 울컥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린다.

운동장.

멀리 다가오는 헬기가 보인다. 구조 바스켓이 바닥에 안착하자 사람들이 우르르 내린다.
마지막으로 내리는 용남과 의주. 이동하며 가족을 찾으려 고개를 돌려대는 용남.

지호

(복적이는 사람들을 뚫고 달려오며)
삼촌!! 용남 삼촌!!!

용남

(지호를 끌어안으며)
지호야! 으흑! 엄마는!! 엄만 괜찮아?!!

지호

응... 흑흑... 괜찮을 거래... 삼촌.... 흑흑...

뒤이어 소릴 지르며 달려오는 장수와 용남의 가족들.

장수

얌마! 이용남!! 너 이 새끼... 이...
(말을 멈추고 용남을 와락 끌어안으며)
크흑흑.... 흑... 아이고 감사합니다... 흑흑... 감사합니다...

현옥

용남아... 흑흑...

누나들의 부축을 받으며 등장하는 현옥, 울먹이며 용남에게 다가온다.

용남

엄마.... 흑...

현옥

(용남을 끌어안으며)
왜 이렇게 늦게 와... 너 왜 이렇게 엄마 속을 썩여! 으흑흑!!

용남

미안해 엄마... 미안해.... 흑흑....

현옥

내가.... 심장이 터져서 죽는 줄 알았어 이눔아... 으흑흑흑...

용남

흑흑... 엄마 미안해!! 내가 앞으로 속 안 썩이고 진짜 잘할게....
흑... 엄마! 나한테 업혀! 내가 업어줄게!! 흑흑...

현옥

왜 이래! 하지 마!!

용남

아나! 나도 엄마 꼭 한 번 업어주고 싶어서 그래! 빨리 업혀!!

용남이 현옥을 억지로 업고, 가족들 모두 용남의 곁으로 재회의 기쁨을 만끽한다.
혼자 떨어져 부모님과 통화 중인,

의주

(울먹이며)

응... 괜찮아... 엄마 아빠 빨리 와... 보고 싶어... 응...

빌린 핸드폰을 경찰에게 돌려주는 의주. 이 때 갑자기 어디선가 나타나 의주 곁으로 달려드는,

구 점장

(의주를 어깨를 붙잡고)

자기야! 괜찮아?! 안 다쳤어?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아까 내가 사람들에게 밀려서 나올 수가.... 아악!!

퍽! 구 점장의 손을 떼고 펀치를 날리는,

의주

얼다 자꾸 손을 대! 내가 자기라고 부르지 말랬지?! 하지 말라면 좀 하지 말라고!

가슴에 차고 있던 명찰을 떼서 구 점장에게 던지는 의주.
성큼성큼 당차게 어디론가 걷기 시작한다.

용남

(소릴 지르며 의주에게 달려오며)

의주야!!

용남이 부르는 소리에 자리에 멈추는 의주, 두 사람이 서로 마주본다.

용남

(잠시 머뭇거리다가)

... 집엔 연락했어?

의주

응... 오고 계신대...

용남

(카라비너를 내밀며)

아... 이거... 잘 썼다...

(대답 없이 카라비너를 뺀히 바라만 보는 의주에게 다시)
안 가져가?

의주

응....

용남

어? ... 왜?

의주

... 무거워...

용남

뭐?

의주

나중에 줘... 오늘은 무거워서 못 들고 갈 거 같아...

용남

... 이게 뭐가 무거워...

의주

... 나는 무겁다고... 나중에 줘...

용남

(의주의 의도를 눈치 채고)

아... 좀 무겁긴 하네... 이게 이렇게 무거웠나... 그래... 내가 다음
에 줄게... 다음에...

용남을 바라보며 얇게 미소 짓는 의주, 용남의 입가에도 미소가 번진다.
갑자기 떨어지는 빗방울에 하늘을 바라보는 두 사람. 비가 대지를 적시기 시작한다.
뒤편 두 사람 사이로 떠오르는 구조 바스켓이 불빛을 반짝인다.
떠오르는 헬기의 시점으로 보이는, 서로를 바라보고 있는 용남과 의주의 모습에서-

<끝>